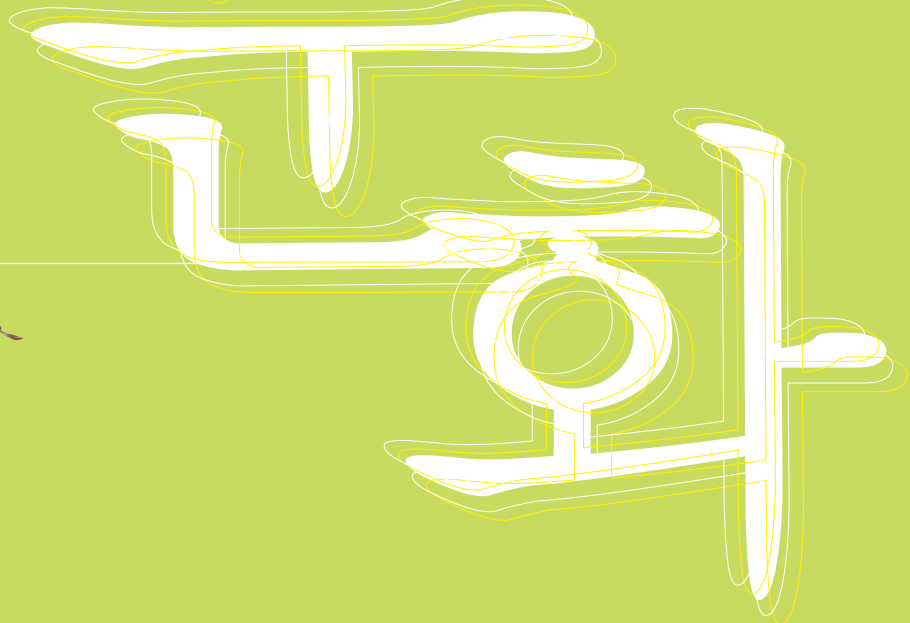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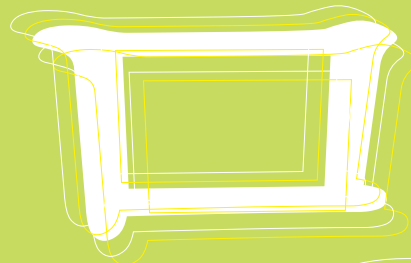




2010.05 Vol. 214 May



(주)한빛관광 NANVIT

여행길을 비추는 큰 빛이 되겠습니다.



HANVIT Tour & Travel

국가기관 해외연수 전문/ 기업 연수 / 전문여행컨설팅

2009, 2010년 주요행사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여성부 과천문화원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청 2010 세계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09 아시안정상회담

Contents

2010. 05 Vol. 214 May

02	연합회 소식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
08	문화원 이야기1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과정
10	문화원 이야기2	구미문화원
14	기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삼존불 불안했던 석굴
17	문화원과 만나다	역사(歷史)를 위한 증언(證言)
20	사람이 모이는 곳 시장	시장의 먹거리, 떡볶이
26		펼떡이는 주문진, 주문진 시장
30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책에게 길을 묻다
34	인식의 전환_생활문화 공동체	철없이 놀아야 철이 든다
40		변산공동체
44		성남분당 한산이씨 중앙공원
48	한국의 예절	공동예절
52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9		우리문화소식
60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박호현(대안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민주 서구문화발전),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인쇄 태임 세인파 02)228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지역문화를 알려면 문화원으로 가야한다!!!

새로운 지방문화원 창조를
바라는 목소리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 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 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는 1차 인천 경기지역 대상 3월 15일(월)~16일(화)을 시작으로 하여 같은 달 2차 19일(금)~20일(토) 광주 전라지역, 3차 26일(금)~27일(토)에는 대구 경북지역, 4차 4월 2일(금)~3일(토) 부산 울산 경남지역, 5차 6일(화)~7일(수) 대전 충청지역, 19일(월)~20일(화), 서울 강원 제주 지역을 마지막으로 여섯 차례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역 곳곳의 문화원이 소통하는 자리로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문화담당과장 및 시군구의 문화과장, 담당공무원의 참여가 있었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개회식 전경

지방문화원장

김기홍 장흥문화원장 |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의 법적성격과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관련법규 개정 및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계획'의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문화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김사열 대구동구 팔공문화원장 | 지방문화원은 지역민이 문화활동의 주인이 되도록 '자치적 지역문화의 진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예산지원과 활동평가를 통한 건제에 주력하고 연합회는 중장기적 수준에서 문화활동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원옥 연수문화원장 |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역할도 지역정체성 구심체로서의 한정된 역할에서, 지역계층간의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김형순 동해문화원장 | 인성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육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고민은 한국의 문화원에 달려있다.

박동선 사천문화원장 | 문화의 뿌리는 지역문화이며 전통문화는 경쟁력과 상관없이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방치해서는 한국문화의 유지도 어렵다. 국가가 나서 지역문화의 전승, 유지,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장현석 청주문화원장 | 문화원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청주문화원은 청주 문화총서발간사업과 청주문화재 알리기 양성교육 과정 등, 지자체의 지원



정홍익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의 강의 모습

과 문화원 자체재원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지원이 뒤따르는 것이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 지방문화원의 현황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송재민 대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①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②공모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고민 ③16개 연합회 시도지회를 시도문화원연합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공하여 지방문화원 자체적으로도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안수경 포항문화원 사무국장 | 종합계획(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문화원과 문화원을 둘러싼 환경에선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시도지회는 연합회와 문화원간의 매개고리가 되어야 하며 지방문화원은 발로 뛰는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 조준원 곡성문화원 사무국장 |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계획(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원의 재정이나 인력확충, 지방행정개편 추진에 따른 문화원의 통·폐합 문제등 당면과제들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

위) 박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아래) 토론회 전경

좌측부터 사회를 맡은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

패널: 송병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권삼문 구미시청 학예사

김사열 대구팔공문화원장

안수경 포항문화원 사무국장

신동호 리서치21 대표

박승희 영남대 국문과 교수





노정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사무관 브리핑 모습

와 연구가 필요하다.

황원준 부산시지회 사무처장 | 종합계획(안)에는, 경영마인드와 중장기 계획이 빈약하고 인력부족·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미흡한 점 등 문화원에 대한 뼈아픈 지적과 포괄적인 차원의 방안들이 실려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선 조직 및 기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방문화원 기반구축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권삼문 구미시청 학예사 |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해당 문화원의 난제를 파악하고 최우선 해결과제를 찾아야 한다.

박길주 남해군청 문화관광과장 | 현재 지방문화원은 사업 안정화와 타문화단체와의 차별화, 문화시설 및 재원확충 같은 문제들과 당면해 있다. 이에 남해군은 남해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자매결연을 통한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 지방문화원이 문화원형 등을 발굴할 경우,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나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젊은 인재, 그룹등과 연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정훈 영암군청 문화관광과장 | 문화원이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체제를 총괄함으로써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가 문화원지원육성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유도해야 한다.

분임토론 모습



이창주 충남 공주시 미래도시팀장 | 우수문화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등, 문화원 운영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문화원의 자구노력이 어우러질 때 문화원 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것이다.

장동철 과천시 문화체육과장 | 지방문화원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를 통한 조직(인력)구성을 강화해야 하며, 활동공간 확보와 시설확충 및 국가, 지자체의 지원제도로로 재원확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 문화원이 지역에서 '문화적 어른' 으로서의 단단한 중심축을 세운다면 다양한 자기역할들이 순차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원이 현대적 개념의 문화 사업체가 되는 것보다는 지역의 문화를 사람들의 실제적 일상에서 찾아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강한 모습으로 서있기를 기대한다.

라도삼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문화원은 '지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가장 지방적인 조직이지만, 법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전국적'인 조직이기도 하다. 이 아이러니한 갭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전략적 포지셔닝을 제안한다. 첫째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 정해진 고유성의 측면이며 둘째는 지역적 여건-문화서비스라는 보편적 전달체계 내에서도.

문희순 지역여성문화연구소 공동대표 |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강화, 문화원의 법적 지위확보와 더불어 지역 내 문화원 간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분임토론 모습





분임토론 (원장)

▣ 박승희 영남대 국문과 교수 ▣ 종합계획안이 지역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착근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지역 문화예술가들과의 교감, 연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과 연대의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신동호 인문사회연구소장, 리서치21 대표 ▣ 향토시는 지역의 구체성의 현실을 열어가는 근간이자, 새로운 지역적 삶의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다. 제2의 향토사 시대를 위해서, ①향토지/마을지의 아카이빙과 활용 ②스토리텔링과 대중화 ③향토사 연구의 시공간적 확장 ④향토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기획 네 가지 사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안이영노 기분좋은 QX 대표 ▣ 지방문화원에 사업기회와 지원을 분배하는 역할에 있어서, 약한 곳을 지원하는 사업과 경쟁체제를 통해 우수한 활동처를 선택지원하는 사업을 명료히 구분해서 지방문화원 사례들의 다양성을 감안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 윤성진 안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QX 책임컨설턴트 ▣ 세부적인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별 비중의 조정, 지역문화원의 역량과 여건에 따른 컨설팅 등 계획안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질 때 좀 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안)이 될 것이다.

▣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문화원은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위한 기저인프라로서 그 지원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문화예술 및 관련분야 고급인력양성의 인프라 지원 ②지역 문화자원의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한 하드웨어 기반 마련 ③자생적인 발전과 선순환시스템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④문화단체, 학교, 기관 등 다양한 역량의 시너지를 통한 지역의 진출 및 마케팅 효율화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종합토론회 모습





분임토론 (사무국장)

이정덕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향토문화, 향토문화행사 등 중점적 사업을 바탕으로 한 공동발전계획안을 만들고 나머지 기능들은 부가기능으로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문화원의 여러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현성이 높은 발전방안이 될 것이다.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 종합계획(안)을 실행주체별, 실행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리하고, 지방문화원은 이를 토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각 문화원별 세부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부와 연합회는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예산지원과 법적지원을 연차별로 수립해야 한다.

이태호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 지방문화원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법적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전수철 참사랑포럼 사무국장 | 훌륭한 종합계획(안)이라고 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적합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제도적 변경과 국가적 지원이 수반되어서 현재의 회원 중심 사단법인 형태에서 공익적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한다.



종합토론회 모습



문화원 이야기 1
양 주 문 화 원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과정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주를 사랑하고 문화인으로써의 자긍심을 키워

양주문화원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탐구·답사하여 조상의 슬기와 얼을 계승하고 양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평생학습의 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001년 3월, 3년 교육과정 역사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기 수강생 45명으로 시작된 역사문화대학은 3년의 교육과정 동안 총 22회의 강의와 22회의 답사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주를 사랑하고 문화인으로써의 자긍심을 키워 양주시를 대·내외에 자랑하는 홍보대사로 양성하여 지난 2003년 제1기 30명 수료생을 시작으로 현재 7기까지 189명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수료생 중 15명이 양주 홍보대사격인 문화관광 해설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양주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사문화대학은 지속적인 역사문화의 탐구활동과 함께 양주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 교육과정

1, 2학년은 6회 강의 6회 답사(1박2일 1회포함)

3학년은 10회 강의 10회 답사(1박2일 1회포함)

연구반 과정 6회 강의 6회 답사(1박2일 1회포함)

(3학년과 연구반은 자비부담으로 해외답사를 실시)

■ 수강료 : 1학년 25만원, 2학년 20만원, 3학년 30만원, 연구반 20만원

■ 강사료 : 강의 10만원(2시간기준), 답사 20만원(1일기준)

■ 운영방법

1학기 3~6월(4개월), 2학기 9월~12월(4개월)

매주 월요일 강의, 수요일 답사, 12월 수료식, 3월 입학식

■ 운영경비

시보조20%, 수강료50%, 자부담30%로 총금액 약5천만원정도





문화원 이야기 2
구미문화원

문화활동 저변확대 위해
읍면동에 분원 설립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하여 문화원회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구미는 동양최대의 내륙공업기지로써 전자산업의 메카로 최첨단 전자산업의 디지털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연과 지연 그리고 풍속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조상대대로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분들과 다소 이질적인 감이 없지 않았으며 이곳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최첨단 현대 젊은 문화와 조화로운 구미의 새로운 문화가 이뤘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에 부응하는 구미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고뇌하고 노력해오고 있지만 결과는 항상 만족할만한 수준의 공감대와 분위기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하고 또한 고쳐 나기는데 문화원이 앞으로 시민의 호응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구미문화원은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역사적 문화적 한 뿌리로 재결합하여 도농복합 구미시로 통합됨에 따라 선산문화원과 구미문화원도 통합하여 새 구미문화원이 발족하게 되었다.

孔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三十而立하고(서른살에 자립하였다)고 하셨듯이 구미문화원도 강산이 3번 변화하는 동안 이제 三十而立의 정신으로 통합의 진통과 술한 고난을 무릅쓰고 40만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역사의 고장! 정신문화의 뿌리! 구미시민의 긍지를 살리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내 고장의 문화재 및 기념물 보존과 발굴 그리고 향토사의 조사 및 연구와 사료수집 등 내 고장의 문혀져있는 역사를 발굴해내고 학생, 주민들과 함께 생활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쳐흐르는 건전한 문화적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구미시 인구의 1%를 문화가족으로 영입, 향토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생활문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원 소재지 중심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변화가 요구되어 각 읍·면·동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들기 위해 정관수정과 회원의 동의를 얻어 분원설립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각 읍·면·동장에서 협조를 구해 설립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아직은 서툴고 어려운 점이 많으나 그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성장해가고 있는 중이다.

각 읍·면·동 분원을 설립 및 개원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선산문화원과 구미문화원이 통합되고 2003년까지 100여명의 회원이 이제는 1,000여명으로 문화원이 시민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다보니 조직운영에 이어서 5개분과위원회(유교분과위원회, 문화교육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차(茶).음식분과위원회, 문화탐방분과위원회)두고 각 읍면동장과 문화원이사님 그리고 회원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현재 11개읍면동에 분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된 분원을 보면 산동면, 옥성면, 인동동, 해평면, 지산동, 고아읍, 양포동, 선산읍, 무을면, 상모사곡동, 장천면 순서로 분원이 설립 개원(분원설립현황 도표참조)되었다. 설립개원 시 본문화원에서는 준비자금 오십만원과 분원현판을 제작하여 개원하는 날 전달하고 있으며 나름 읍면동에서 유지급인사가 발기인 및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원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지역특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협조로 분원사무실운영 보조금을 1년에 각분원별 일백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분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각읍면동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요즘은 읍면동단위로 조그만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 축제에 문화원분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즉 무을분원은 무을 생태고을 버섯축제, 해평분원은 해평연꽃축제, 장천분원은 코스모스축제를 주관하여 해당 읍면동분원의 역할은 문화원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충효교실운영과 문화탐방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회원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분원설립 전에는 문화원 소재지 중심의 활동에서 현재는 전 지역에 균형 있는 활동전개로 주민 속으로 저변 확대되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끌어 지며, 인원 동원 등의 민폐가 줄어들었으며 각분원단위로 회비징수와 전통문화자료 수집 등의 계기가 조성 될 뿐 만 아니라 회원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받아 상호 협조할 수 있으며 분원별 정기총회에서 본원의 업무사항을 보고하는 등 읍면동분원별 소재지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분원별 사업계획을 보면 각읍면동의 평안과 풍년기원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잊혀져 가는 동제 및 제를 분원주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며, 문화원에서 분원회원을 중심으로 선비교육과 가령 서예교실, 풍물교실 등 회원과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하여 문화원회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매년 문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분원에 대해서는 최우수분원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해 우수분원상과 함께 사업부문시상도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다.



현재 구미문화원에 설립된 분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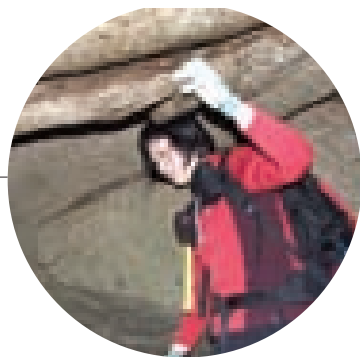
분원	설립일자	회원수	분원장 성명	총무 성명	주 소 (구미시)
산동면	2004. 8. 9	45	김 영 화	김 유 복	산동면 적림리 57
옥성면	2005. 1. 7	44	조 규 선	이 봉 진	옥성면 초곡리
인동동	2005. 1. 14	125	채 용 기	최 상 태	인의동 440-1
해평면	2005. 3. 21	119	이 판 모	황 상 원	해평면 월호리 435
지산동	2005. 5. 26	31	최 상 만	홍 승 표	지산동 105-12
고아읍	2005. 6. 16	70	강 중 진	최 경 희	고아읍 대망리 596
양포동	2005. 6. 16	65	김 정 무	김 경 순	거의동 386
선산읍	2005.11. 16	110	김 낙 형	김 영 한	선산읍 완전리 253 시장상가 B동 3층
무을면	2007. 1. 4	34	김 연 상	이 성 영	무을면 송산리160-7
상모사곡동	2007. 2. 23	71	한 상 백	이 정 희	광평동 442
장천면	2009.9. 9	35	박 중 열	김 신 애	장천면 오로리 1708

기 고



진불암 계곡 부처굴이 제1석굴암 이래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삼존불 봉안했던 석굴



봄을 마중하는 비였지만 제법 굵어진 빗방울이 주위의 기운을 떨어뜨리면서 한겨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상쾌했다. “드디어 찾았다!” 지난 3월 6일 봄비가 대지를 적시는 가운데 팔공산 치산벨트 염불굴 계곡의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청아한 소리와 한가롭게 산새들이 일대를 날아다니면서 평온함을 선사했다. 1942년 조선총독부 식산국 산림과에서 임야 가운데 있는 고적 유물을 조사해 고적대장을 만들고 그것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를 기초로 지난 2006년 3월 19일 첫 답사를 나선 이래로 거의 3년만이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영천군조의 불상항에 「팔공산 아래 진불암 계곡의 암석지내(巖石地內)의 일부에 수도사에서부터 약 20정(約 2.2km), 진불암에서 수정(數町:1정은 약109m)의 산중턱에 거대한 화강암 굴속에 자연석에 조각한 높이 3척, 홍폭 1척8촌의 좌불상 1구, 높이 3척4촌 홍폭 1척2촌과 높이 2척5촌, 홍폭 1척2촌의 수호불 각 1개가 있는데 표면에 균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두 구는 일부 파손된 곳이 있어도 거의 완전해 가까우며 근처에 분쇄되어버린 2, 3구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해 11월 18일과 이듬해인 2007년 4월 15일 경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답사 이후 관망하다가 지난해 8월 팔공산이 좋아 진불암과 건너편 동아골에서 20여년간 생활했던 진불암의 산역사로 알려진 삼봉스님(73)을 만나기 위해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의 보림암을 찾아가기도 했다. 지난달 말

영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성찬(49)씨가 대구 팔공산지킴이가 석굴을 찾았다는 제보를 해왔다. 팔공산지킴이 카페지기 서태숙(49)씨와 연락을 취하면서 2월 28일 홀로 나섰지만 녹지 않은 눈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3월 4일 기어이 석굴을 찾았다며 퇴근 무렵 필자를 찾아온 박씨가 입구부터 석굴까지 필자를 위해 표시를 해줬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져서 찾기 위해 떠나는 마지막 답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팔공산지킴이 서태숙 씨로부터 함께 가자는 연락이 왔다.

6일 오전 대구 팔공산지킴이 조명래(53·경주 불국사 문화재위원/문화유산해설사)·박용근(55)·서태숙(49) 회원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중 답사에 나섰다. 공산폭포를 지난 후 현수교에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직진하면 진불암 1.3km, 동봉 3.2km, 수도사 1.7km 지점에 6·25동란 이후 산판을 했던 제재소 터가 나온다. 이곳에서 개울을 건너지 않고 등산로를 죽 따라가다가 갈림길에서 위로 올라가면 거대한 화강암 석굴이 우뚝서있다. 석굴은 입구 폭 230cm, 높이 140cm, 굴 안가로 폭 470cm, 최고높이 190cm, 길이 490cm의 아치형으로 성인 7·8명은 족히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입구 우측의 바위에 넘어진 나무뿌리로 인한 파손이 있어 보수가 필요하고, 굴 안의 바위도 손으로 당기면 떨어지나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수도사에서 동남쪽으로 약 20정(2.2km)이지만 직선거리는 650m 정도이며 GPS로 측정해보니 해발은 620m정도였다. 석굴은 찾았지만 삼존불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일본으로 건너갔을 수도 있고, 6·25사변 후 산판(벌목 또는 벌목을 하는 곳을 가리키는



강원도 사투리)을 하면서 누군가가 가져갔을 경우 등으로 추측되지만 삼존석불의 존재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고려 말 승려 신돈이 실각하면서 일대의 불상을 부처굴에 모두 숨겼다고 합니다. 좋은 불상은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산판 당시 인부들이 ‘저안에 부처 들었다’며 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다쳤어요.”

내려오는 길에 산 아래 마을인 치산리에서 자랐다는 대한불교 태고종 영지사 주지 이상열(72)씨를 방문하니 어릴 때 기억을 이야기했다. 이씨는 이어서 일설에는 우리나라에 3개의 석굴암이 있는데 경주석굴암이 제3석굴암이고 군위삼존석굴이 제2석굴암이며, 치산계곡에 있는 석굴암 즉, 부처굴이 제1석굴암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고도 했다. 한편 팔공산지킴이는 옛 자료와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변의 흔적을 찾아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팔공산으로 향하고 있다. 제1석굴, 시루봉의 우물, 돌아부지, 공산성, 오도굴, 장군바위, 옛수도사터, 절도바위, 광석대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절터로 추정되

는 곳은 아직도 계속 조사 중이다. 앞으로 더 찾아야할 것도 있어 올해 4월 초과일을 기점으로 치산벨트를 활용한 추천 산행 코스와 자료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치산벨트의 조사가 끝나면 ‘은해사벨트’ 역사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은해사벨트 탐사는 영천문화원, 영천향토사연구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이날 부처굴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준 팔공산지킴이 회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이원석 영천문화원 사무국장

역사(歷史)를 위한 증언(證言)

- 구, 광양군 청사 보존을 위한 3년의 여정

문화원에 근무한지가 만 4年째 입니다.

이제 인턴 기간을 끝내고 문화원의 역할과 사업이 무엇인지 눈을 뜨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글은 문화원의 많은 역할 중 그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에 해당되는 구, 광양군 청사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까지의 3년의 여정을 진실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신은 말없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진실은 결코 다수결로 판가름 할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 광양군청사 (구, 광양읍사무소)

문화원을 만나다

1. 문화원사 이전의 절박함

2006년 7월 공채를 통해 문화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5년의 역사를 가진 광양문화원이 산업화의 뒷전에 밀려 28㎡(9평)의 좁은 사무실에 책 한권 제대로 놓을 곳 없어 컨테이너box에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지역의 선배님이시기로 한 문화원장님과 상의해서 문화원의 제1의 급 선무를 원사 이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역대원장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화원의 위상 이 손님이 3명이상 찾아와도 앉을 곳 이 없는 그런 실정 이었습니다. 광양시의 명예를 위해서도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문화원의 현실을 극복 개 선해 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2. 좋은 기회 그러나 시련

때 마침 구. 광양군청사를 사용하고 있던 광양읍사무소가 2007년. 11. 15일 신청사를 마련해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읍, 면, 이장단들의 동의와 광양시의 주민의견 수렴(2007. 2. 1~4. 31)을 통해 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던 구. 광양군청사를 역사성을 고려하여 건 물을 보존하면서 광양시의 향토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향토 문화 전시관 (문화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2007년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공공시설 설치(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 계획안이 승인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광양군청사 인근 일부 상인들이 구. 광양군청사(건축연면적) 1650㎡(500평) 부지 2598㎡(782평) 에 문화원이 와서는 안 되고 노후화 된 일본식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상가의 활성화 를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시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회 승인과 함께 예산이 책정된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이전 준비와 내부구조 변경에 중지를 모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을 선동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주장이 별로 여론이 좋지 않자 로테오 거리, 소공원등 공원을 만들자고 재주장하여 문화원 이전 반대 서명 작업에 돌입 했습니다. 주변 상인 600명의 문화원 이전 반대 서명부를 들고 시장과 시의장을 면담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하라고 시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 끈질긴 설득 그리고 성취

1942년 일제시대 때 지어진 구. 광양군청사는 68년의 역사를 지닌 광양시의 행정의 중심지로서 광양인의 정신과 생활을 대변해온 광양읍성의 4대 문안의 중앙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집단민원을 접수하여 다시 2008년 초부터 구. 광양군청사를 보존해야 할 것인가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3회 이상의 시민 공청회와 광양시의회의 재심의, 건물 안전도 검사, 이.통장 회의등 수많은 이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찬, 반측의 인신공격, 흑색선전과 함께 비방이 판을 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문화원은 긴급 대책회의와 이사회의를 소집해서 구. 광양군 청사 보존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원사 이전과 구. 광양군청사 리모델링 예산 6억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국장은 보름동안 시의회로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구. 광양군청사(구, 읍사무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나종남 광양문화원 사무국장



사람이 모이는 곳 시장

시장에 가면,
떡볶이를 기억한다.
행복을 먹는다.

시장의





떡볶이에 대한 추억 행복해지고 싶을 때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그냥 지나치기 싫은 곳이 있었다. 매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살짝 자극하게 될 무렵 고개를 돌리면 빨간 고추장양념에 버무려진 떡볶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마와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요.”

다른 음식이라면 한참 실갱이가 있을 상황, 엄마는 잠깐의 망설임 후 시장 한 칸에 차려진 떡볶이가게 아주머니에게 떡볶이 한 접시와 오뎅을 주문한다. 플라스틱 접시에 담겨지는 떡볶이를 바라보며 꿀꺽꿀꺽 침이 넘어갔다.

떡의 개수는 맞는지 혹시 아주머니의 실수로 떡이 하나라도 더 오지는 않을까 떡볶이를 뜨는 주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마음을 알았을까, 인심 좋은 아주머니의 한 마디...

“꼬마가 이뻐서 떡 하나 더 넣었다. 많이 먹어라.”

그 말이 참 고마웠다. 말캉말캉한 떡에 묻혀진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을 쪽쪽 빨아먹으며 매운 입안을 오뎅 국물로 입가심했다. 떡볶이를 먼저 먹을까, 오뎅을 먼저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입가가 벌개지는지도 모르고 참 맛나게 먹었다. 이러한 추억은 아마도 필자만의 기억은 아니리라.

떡볶이는 그렇게 시장에서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배려하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시장의 서민음식’이었다. 아마도 떡볶이가 게가 없는 시장골목은 없을 것이다.

떡볶이를 기본 메뉴로 오뎅, 순대, 튀김을 같이 파는 떡볶이가게...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떡볶이는 한 접시에 100원이었다. 100원 어치에는 말캉한 밀가루떡이 10개 나왔다.

간혹 오뎅 한두 조각과 대파 한조각 정도가 곁들여지는 소박한 음





식이었다. 떡볶이 한 접시면 참 배도 부르고 마음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시장에서 엄마와 먹을 때도, 학창시절 친구들과 수다 떨며 먹을 때도 그 기억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그 기억 때문일까? 행복해지고 싶을 때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진다.

떡볶이의 역사_ 임금님이 드시던 간장떡볶이 에서 서민들의 간식 고추장떡볶이로

떡볶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떡볶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즐겨먹는 매운 고추장떡볶이가 아니었다.

일단 고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로 알려져 있다.

떡볶이의 주요 양념인 고추장은 18세기 후반 1766년(영조 42) 유중임(柳重臨)『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처음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즉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고추장이 없었거나 고추장이 대중화되기 이전이므로 고추장떡볶이가 존재할 수 없었다. 떡볶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엽의 상주지역의 반가음식의 조리서로 전해지는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처음 등장한다.

떡볶이는 흰떡과 쇠고기, 표고버섯 등 야채를 간장과 참기름 등 양념에 볶아먹는다고 하였다.

방신영(方信榮)이 20세기 초에 발간한『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도 역시 양념에 쥔 쇠고기를 볶다가 흰떡 삶은 것과 볶은 채소를 함께 버무려 볶은 것을 떡볶이라고 하였다. 한편 떡볶이와 유사한 떡점에 대한 기록도 있다.

조자호(趙慈鎬)가『조선요리법(朝鮮料理法)』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떡점은 고기 쥔 것과 호박고지, 표고를 볶다가 흰떡을 넣고 버무린 다음 살짝 데친 무, 당근을 넣고 육수를 부어 무르게 익힌 찜이라고 하였다.

고명으로 미나리초대, 황백 알지단 채친 것, 석이채, 완자, 실백, 은행을 얹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떡점 역시 고급음식이었을 것이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주방상궁으로부터 궁중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아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인 조선왕조궁중음식의 기능보유자였던 고(故) 황혜성(黃慧性)은 궁중음식에 관한 문헌을 정리해서 1957년 펴낸『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考)』에도 궁궐에서 먹었던 떡볶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195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떡볶이는 살짝 삶은 흰떡을 고기와 야채와 함께 간장양념에 볶은 것으로 궁중 및 상류층이 즐겨 먹던 고급음식이었다.

요즘은 드라마 대장금에 소개된 이후부터 궁중떡볶이가 아닌 대장금떡볶이로 더 유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즐겨먹는 고추장떡볶이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신당동 마복림 할머니 떡볶이가게가 한국전쟁이후인 1953년 신당동의 좌판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원조 고추장떡볶이라고 여기고 있다.

여기에는 마복림 할머니의 사연이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3년, 3년 동안의 피난살이로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마복림 할머니는 손님을 대접을 위해 찾아간 중국음식점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찾게된다. 가장 만만한 개업식 떡을 끓였는데 그만 친정아버지가 드시던 자장면 그릇에 빠뜨렸다.

마복림은 자장면 양념이 묻은 떡을 먹고 그 맛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고추장과 함께 조리하면 더 맛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고추장떡볶이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떡볶이의 주요 양념인 고추장은 18세기 후반 1766년 (영조 42) 유중임(柳重臨)『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처음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신당동에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고 30대 이상의 세대에게서는 학창시절의 명소이다. 마복림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신당동떡볶이는 일종의 즉석떡볶이로 냄비에 익지 않은 재료를 함께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음식이다.

이후 고추장떡볶이는 지역과 장소에 따라 세대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고 변화·발전하고 있다.

한편 다른 생각도 해본다. 시장에서 팔던 고추장떡볶이는 누가 눈여겨보며 기록하지 않았던 기억이라는 것이다. 즉 무형의 역사였던 것이다.

마복림할머니의 떡볶이가게처럼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저 식구들에게 밥 세끼 먹게 해준 작은 가게였다면 추억 저편으로 기록 없이 스쳐갔을 수도 있다.

앉을 자리조차 없는 떡볶이 포장마차의 경우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의 뇌리에만 기억되고 사라질 수도 있다. 전국의 주요 떡볶이가게에 대한 구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직은 마복림 할머니 떡볶이집이 모든 고추장떡볶이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물론 마복림할머니 떡볶이가게는 신당동떡볶이의 원조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임금님과 상류층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인 떡볶이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마복림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어머니들이 생활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쓴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신의 일에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얻



어 전쟁 이후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다. 결국 떡볶이가 임금님과 상류층의 음식에서 시장의 서민 음식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할머니·어머니 세대의 힘, 서민들의 힘이었던 것이라.

통인시장의 명물 ‘기름떡볶이’ _ 궁중떡볶이의 후예로서 역사 적 사명을 가진 떡볶이

효자동 통인시장에 가면 다른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장떡볶이와는 다른 색다른 떡볶이가 명물이다.

‘원조 할머니 떡볶이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이곳은 소위 ‘기름떡볶이’로 유명하다. 일반 떡볶이가 이름만 ‘떡볶이’ 이지 조리 형태가 고추장과 물이 어우러진 ‘떡찜’ 혹은 ‘떡조림’에 가까운 반면 ‘기름떡볶이’는 진짜 물기 없이 ‘기름에 볶은 떡볶이’이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기름떡볶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얀떡볶이와 빨간떡볶이.. 하얀떡볶이는 간장, 마늘, 파, 기름에 양념해 두었다가 주문 들어올 때마다 가마솥뚜껑에 볶은 것으로 간장양념 떡볶이이다.

빨간떡볶이는 하얀떡볶이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양념한 것으로 고춧가루양념 떡볶이이다.

‘기름떡볶이’의 역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인시장에 ‘기름떡볶이’를 처음 개발하여 판매하던 할머니²⁾는 30년간 그 자리를 지키다가 20년 전 지금 운영자인 할머니³⁾에게 넘겨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기름떡볶이’의 개발자인 큰할머니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생존해 있다면 102세가 된다고 현 운영자인 작은할머니가 살짝 귀뜸해 주었다.

작은할머니는 20년 전에 만들었다는 무쇠로 만든 두꺼운 가마솥 솥뚜껑을 자랑한다. 기름이 골고루 뱅 솥뚜껑에 주문받은 떡볶이를 그때마다 볶아주고 있다. 떡은 매일 아침 시장 내 떡집에서 쌀떡으로 뽑는데 일반 떡볶이떡보다 가늘어 간이 잘 밴다.

작은할머니에게 ‘기름떡볶이’를 만들게된 사연을 물었다. 큰할머니가 개발한 것이라 모른다고 하면서도 ‘실은 궁중떡볶이’라고 작게 속삭여주었다.

그리고 보니 하얀떡볶이는 쇠고기와 야채가 빠진 궁중떡볶이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렇다. 시장에서 만나는 서민용 궁중떡볶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도 서민용 궁중떡볶이인 하얀떡볶이를 팔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떡볶이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 간장 떡볶이에서 고추장떡볶이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단계를 확인하는 기쁨을 느꼈다.

좀더 정확한 사정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통인시장이 경복궁에 가까운 것도 심상치 않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인시장의 ‘기름떡볶이’는 좀 색다른 떡볶이가 아닌 궁중떡볶이의 전통을 간직하며 역사의 대를 잇는 떡볶이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지... 새로운 연구과제를 찾은 것 같다.





떡볶이를 부르는 아름다운 문화로_

행복해지고 싶을 때 떡볶이를 찾는 사람들 만들어야

떡볶이를 주목하고 있다. 떡볶이연구소도 생기고 떡볶이가게도 프랜차이즈화되고 떡볶이페스티벌도 한다.

떡볶이를 정책적으로 한류의 하나로써 떡볶이 판매를 쌀소비 수단으로서 생각한다. 발전해야 할 방향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잊으면 안될 것 같은 몇 가지가 생각난다.

떡볶이가 변화해온 일상의 역사, 떡볶이를 먹으면서 느꼈던 우리의 정서, 특히 시장문화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생각일까?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가벼운 주머

니의 배고픈 사람들이 찾았던 음식, 떡볶이.....

떡볶이가 길거리 음식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느낌은 기우이길 바란다. 떡볶이는 시장과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이었기에 서민의 문화로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재료와 위생적인 면에 대한 발전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든 문화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일률화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문화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아름다운 문화는 역사가 살아있고 깊이가 있어야 하면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람냄새가 있어야 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싶을 때 떡볶이가 생각나면 좋겠다. 음식을 부르는 것은 기억이고 문화이다.

안정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전성시_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펼떡이는 주문진, 주문진 시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강릉시가 후원하고
강릉문화원이 주관하는

문전성시 프로그램이 올해 햇수로 3년째를 맞는다.
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지역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강릉의 주문진 시장을 들여다보자.

1



2



문화로 거듭나는 펄떡이는 주문진 시장
강릉문화원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주문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자원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주문진시장(수산시장+종합시장+건어물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일부 관광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국 유사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점차 쇠퇴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와 결합하여 전통시장의 기능과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고, 동시

3



에 지역의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문전성시_펄떡이는 주문진 시장]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주문진시장

주문진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시기에만 지역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간을 연계성 없이 제한적으로 스쳐갈 뿐 지역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누

구나 주문진 시장을 '들르게끔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 단일의 유인요소보다는 상품, 서비스, 마케팅, 접근성, 홍보 등 여러 유인 요소들의 구성력과 지구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들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소비 체험을 하는 일'을 중요시하였다.

단순하게 짜여진 관광일정 체험을 위한 주문진시장 방문이 아닌 누구나가 쉽게 주문진시장을 찾아 걸어나다니면서 보고, 듣고, 먹고, 사게되는 문화적 체험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적 편익과 경험적 편익이 적절한 조화가 된 프로그램 설치가 시급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문진시장이 '활기차고 좋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게 하는 일'이 중요시되었다.

그렇게 해서 주문진시장을 새롭게 부르는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주문진시장에서 생활하는 상인들과 구성원들이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 시장을 만들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문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4



활기를 주는 주문진 시장으로, 시장상인들에게는 생활의 활력터인 시장이 주문진의 매력에 매일 매일 변화되는 '시장'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개성있는 즐거운 시장으로 변신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5



동해안의 풍어제와 시장의 만남

점점 사라져가는 장터축제를 재현하고 예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동해안의 풍어제를 연계하여 지난 해 4월 '동해안 풍어제'를 개최하였다.

'동해안 풍어제'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번영과 문전성시 사업의 성공기원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축제기간동안 다양한 공연팀을 초청하여 주문진시장 전체가 놀이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6

싱싱생생 '싱쌔쇼'

오세요~ 보세요~ 주세요~ 시끌벅적 문
전성시 라랄라~ 라랄라~ 모두모두 함
께 사는 주문진항

주문진시장에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흥
겨운 음악소리와 함께 상인들이 율동을
시작한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처음에
는 신기하게 쳐다보면서도 흥겨운 리듬
에 맞춰 함께 동작을 따라하면서 즐거
워한다. 주문진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싱쌔쇼'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좁은 가게안에 갇혀 지내시는 상인
들이 잠시나마 쉽고 재미있는 노래와
율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처음 쑥스러워하시던 모습은 없어지고

2차 사업에서는 조금 더 율동이 크고 복어모양의 소품까지 동원
하여 '상인극단' 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꽁치극장과 시장 갤러리

주문진시장의 대표명물 '꽁치극장'

꽁치극장은 개관시기에 많이 잡히는 꽁치의 이름을 빌려 바다에
많이 나는 꽁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힘찬 꽁치의 움직임처럼 활발한 문화활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
음을 담아 꽁치극장이라 이름지었다.

주문진시장의 유희공간으로 있던 옥상을 시장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문진을 소재로 스토리텔링화한 공연이나
주변 지역 및 전문 공연팀의 이벤트,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명
소화시킴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각 상권의 접점이 되는 공터에 컨테이너작업을 활용하여 갤
러리와 인포부스를 만들고 시장공간을 갤러리화하여 문화적 시
장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비작업과 홍보물 개발을 통해 시
장 내부의 일체감 및 방문객에게는 안정감 형성하도록 하였다.

수산물시장과 종합시장 및 건어물시장의 교차지점이 되는 공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색적인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시장 관련한
작품과 정보를 비치함으로 고객들의 쉼터 및 명물 문화시설로 활
용하고있다.





7

8

재래시장의 건물 외벽과 진입로 및 점포의 내/외부 등에 환경디자인적인 시각작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장소 인지도 강화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예술작업의 내용과 의미를 홍보하고자 수산시장 및 종합시장 통로에 Flag Art 공간을 마련했다. 시장 내부에는 윈도우 반투명 실사 랩핑작업, 수산시장 외벽에는 페인팅작업, 건어물시장은 차양막 디자인 등을 진행했다.

나는 전국 제1호 시장해설사

주문진시장에 가면 넉넉한 웃음을 가진 시장해설사를 만날 수 있다.

시장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은 지역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문진시장이 갖는 특성과 시장별 주요품목, 맛있는 음식 등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걸쳐 필기,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된 20여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장해설사들은 주로 주문진시장을 팸투어 관광객(지난해 18개 문화원, 1,400여명 참여) 및 시장을 찾는 학생들에게 주문진시장의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주고 있다.

12. 시장상인 및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 모두 하나되는 길거리 축제 '동해안풍어제'

3. 시장갤러리에 걸린 사진을 감상하고 있는 상인

4.7. 지난 해 6월, 공치극장 개관 기념 공연

5. 시장갤러리(북어갤러리, 도치갤러리) 개관식

6.8. 장사하는 시간에 공치극장 무대가 열리면 상인들이 직접 무대위로 올라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행소' 시범을 보인다

시장이야기 가득한 시장신문, 시장달력

시장은 경제의 공간이기 이전에 소통의 공간이므로 주문진시장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문을 제작하였다. 시장상인들의 인간적인 진솔함이 잠재 고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매달의 주요 주제를 정해 집중 취재 후 기획기사로 별도 기획을 꾸리고 시장 상인들의 특별한 이야기, 휴먼스토리, 시장맛집 등을 다루어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주문진시장의 여러 장소와 인정 가득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담은 문화달력을 제작하여 주문진시장과 문전성시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이기에 앞서 시장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시장과 주민,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빈잡하게 펄떡이는 주문진 시장을 기대해 본다.

김유진 강릉문화원 문화예술교육팀장

4月は各種記念日が多い月だ。其中で4月23日はユネスコが定めた世界読書の日だ。

1995년 28차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총회에서 세계인의 독서증진을 위해 정한 날로 매년 4월23일이다. 정식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로서 4월23일로 정한 것은 스페인 북동부 출판 중심지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던 '산트 호르디(Sant Jordi)의 날'과 1616년 세계적인 작가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해마다 세계 책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세계 책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네스코는 독서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자에서 발원하여 인간의 특권인 사고(思考)를 나타내는 책은 인간이 창조해낸 영조물 중 으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날 기념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는 지식폭발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이나 학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폭발의 시대에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인생을 헤쳐 나갈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책보다 유용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제한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직접체험

을 통하여 습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최선의 비법일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과 간접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민주시민으로서 지나야 할 교양과 정신수양, 여가선용과 건전한 취미생활, 자아성장의 바탕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항상 책을 가까이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다.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 카페 등의 활동을 하면서 책에 관한 얘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책에 대한 글귀나 명언이 나오게 된다.

나도 글을 쓸 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명언들은 책이나 독서의 중요성 및 효능 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또한 책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책에 관한 명언, 사자성어, 속담 등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먼저 동서양의 현자 및 지식인 100명이 그들의 저서 또는 글에서 남긴 책에 대한 명언을 살펴보고자한다.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책에 게 길을 묻다



(1). 책에 관한 명언

○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보다 독서로 더 많은 지식을 취하라.

소크라테스

○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진다.

J.에디슨

○ 우리는 모든 책이 불에 탄다는 것을 알지만 책을 불로 죽일 수 없다는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죽어도 책은 결코 죽지 않는다.

F.D.루스벨트

○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 독서의 진정한 기쁨은 몇 번이고 그것을 되풀이하여 읽는 데 있다.

H.D.로렌스

○ 책이 없는 백만장자가 되느니 보다 차라리 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가 되는 것이 한결 낫다.

D.R.매콜리

○ 약으로써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써 마음을 다스린다.

줄리어스 시저

○ 책을 한번 읽으면 그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재독하고 애독하여 다시 손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애착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J.러스킨

○ 한편의 좋은 책은 위대한 정신의 귀중한 활력소이고 삶을 초월하여 보존하려고 방부처리하여 둔 보물이다.

J.밀턴

○ 마음속의 아름다움이란 그대의 지갑에서 황금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대의 서재에 책을 채우는 일이다.

존 릴리

○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독서를 통하여 얻었다.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것은 없다.

몽테스키외

○ 집은 책으로 정원은 꽃으로 가득 채워라.

앤드류 랭크

○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가케로루보코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마크 트웨인

○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벤자민 프랭클린

○ 책은 생각의 나무요 사방으로 뻗은 낙원의 강이다. 책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자라고 지성의 갈증은 해결되며 마침내는 무화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한다.

RD.베리

○ 책은 그 누구보다 우뚝 키가 큰 사람이고 다가오는 세계에 들릴 만큼 소리높이 외치는 오직 한 사람이다.

EB.브라우닝

○ 나는 긴잠 다시 말해서 죽을 때 책을 베개 삼아 누울 것이다.

A.스미스

○ 책은 불행한 사람에게는 나무랄 데 없는 상냥한 벗이다. 인생을 즐기도록 해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인생을 견디도록은 가르쳐 준다.

O.골드스미스

○ 현명한 사람은 책을 가려 읽는다. 모든 책을 친구라는 신성한 이름아래 등급을 매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알고 있다.

JA 랭포드

○ 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세계가 결국은 책으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볼테르

○ 좋은 책을 읽노라면, 삼천년도 더 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에머슨

○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을 접하였기 때문이다.

A.프랜스

○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인간을 경계하라. 디즈레일리

○ 독서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쇼펜하우어

○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

키케로

○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장폴 사르트르

○ 인간은 한편의 책을 쓰기위해 도서관을 절반이상 뒤진다. J.보즈웰

○ 독서는 약 처방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한편 읽어 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됨에 틀림없다.

패디먼

○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이 늙어가며 겪은 생활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책을 읽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매튜 애널드

○ 책이 없다면 신도 침묵을 지키고 정의는 잠자며 자연과학은 정지되고 철학도 문학도 말이 없을 것이다.

토마스 바트린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빌 게이츠

○ 가장 위대한 책이란 종이테이프에 적히는 전문처럼 두뇌에 새로운 지식이 박히는 것과 같은 책이 아니고 생명이 넘치는 충격으로 다른 생을 눈뜨게 하고 또 다른 생에서 생으로 여러 가지 정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로맹 롤랑

○ 언제나 괴로운 환상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너의 책으로 달려가라. 책은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로 너를 대한다.

T. 폴러

○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운명 탓이나, 독서나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 질 수가 있다.

세익스피어

○ 가장 훌륭한 책은 가장 좋은 책이다.

체스터 필드

○ 책은 그 저자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오는데 한 가지 길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나가는 길은 1만 가지나 되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J. 스위트

○ 훌륭한 독서, 즉 마음을 바로하고 참된 책들을 읽는 것은 고상한 행동이다.

H.D. 도로

○ 큰 도서관은 인류의 일기장과 같다.

G. 도슨

○ 무엇이거나 좋은 책을 사라. 사서 방에 쌓아두면 독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외면적인 것이긴 하나 이것이 중요하다.

베네트

○ 욕심만으로 책을 잔뜩 쌓아놓고 잘 구비된 서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아는 것이 없이 텅 비어있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 많은 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동안 줄곧 자기 곁에 촛불을 켜두기를 원하는 어린이와 같다.

H. 피침

○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번 읽을 가치도 없다.

막스 베버

○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이다. 독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지 결코 이제부터가 아니다. 오늘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

H. 잭슨

○ 독서는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다. 이것은 모든 독서에 해당된다. 이것이야말로 독서의 기술이다.

E. 파케

○ 독서의 습관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 상당부분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S. 몸

○ 책은 레크리에이션 가운데서도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읽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결코 고독한 가운데 권태를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다.

에드워드 구레

○ 사람의 품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가 교제하는 벗으로 판단되는 것과 같다.

새뮤얼 스미스

○ 책속에 모든 과거의 마음이 잠긴다. 오늘의 참다운 대학은 책을 모접함에 있다.

컬리얼

○ 사람이란 그 얼굴이나 용맹이나 조상이나 문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다만 독서한 학문인이라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느니라.

공자

○ 책을 읽는 데에 어찌 장소를 가릴 소냐.

퇴계 이황

○ 사대부는 3일을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어언(語言)이 무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기 또한 가증(可憎)하다.

황정건

○ 책에 대한 갈증이 모든 욕망을 압도하던 시절 밤하늘의 별빛을 쫓아 길을 찾아가듯 책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생의 미로를 헤쳐나가던 시절 책은 그런 시절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염무웅

〈2〉. 사자성어 등

○ 개권유득(開券有得) | 책을 펴고 글을 읽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 고궁독서(固窮讀書) | 가난을 달게 여기고 학문에 힘씀.

○ 권독종일(券讀終日) | 종일 책을 읽음, 곧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

○ 낙양지가(洛陽紙價) | 책이 널리 세상에 퍼져 애독됨.

○ 남이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 |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하



는 말이다.

○ 독서망양(讀書亡羊) | 책을 읽다가 양을 잃어버림, 곧 책읽기에 몰두한다는 뜻.

○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 책을 백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통한다.

○ 독서삼도(讀書三到) | 독서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우쳐야 한다는 뜻.

○ 독서삼매(讀書三昧) | 오직 책 읽기에만 몰입하는 경지.

○ 독서삼여(讀書三餘) | 책읽기 좋은 세 가지 시기(겨울철, 밤, 비오는 날).

○ 독서상우(讀書尙友) | 책을 읽음으로써 옛날의 현인들과 벗이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독서종자(讀書種子) | 독서를 좋아하는 자손을 일컫는 말.

○ 등화가친(燈火可親) | 가을밤은 서늘하여 등불을 가까이 두고 글 읽기에 좋다는 말.

○ 만권독파(萬卷讀破) | 만권이나 되는 책을 다 읽음, 곧 많은 책을 끝까지 다 읽어냄.

○ 몰라독서(勿懶讀書) | 독서를 게을리 하지 말라.

○ 삼여지공(三餘之功) |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겨울, 밤, 음우(陰雨)를 일컫음.

○ 서중자유천종속(書中自有千種粟) | 책속에 많은 곡식이 저절로 들어있다.

○ 한 시간의 독서로 누그러들지 않는 어떤 슬픔도 보지 못했다.

○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 책속에 길이 있다.

○ 책이 없는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책이 있는 마구간에서 사는 것이 낫다.

○ 황금을 상자에 가득 채우는 것이 자식에게 경서 한권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위와 같이 동서양의 수많은 현자들의 책과 독서에찬이 말해주듯 책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음과 사람으로 사는데 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아울러 맹자가 말한 독서상우(讀書尙友)와 굳이 안중근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너무 유명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소중한 덕목이다. 책속에 길이 있다고 했다.

둘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값지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남이 경험한 세계를 기록한 책에게 길을 묻는 것이 겸손하고도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된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3). 속담, 격언 등

○ 지혜의 샘은 책 사이로 흐른다. 영국속담

○ 책은 이를 펴보지 않으면 나무 조각이나 다름없다. 영국속담

○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아야 한다. 스페인속담

○ 나쁜 책보다 더 나쁜 도적은 없다. 이탈리아격언

○ 몇 번 읽기보다는 한번 베끼는 편이 낫다.- 중국격언





철없이 놀아야 철 이 든 다

애들아~
들로 산으로 놀러가자!



철딱서니학교의 스물두명의 식구들

학교 다녀온 아이들로 또다른 학교 철딱서니학교가 분주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연달아 이어지는 22명의 목소리. 이 아이들은 팔랑분교를 다니는 도시아이들입니다.

주소지를 동면 팔랑리로 옮겨와 이달만 해도 22명의 새로운 식구가 동면에 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학교 다녀오기만 하면 책가방 던져놓고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논과 밭으로 달려갑니다. 철딱서니들에게는 200평의 밭과 400평의 논이 있습니다. 1학기 밭농사는 풀과의 대결에서 지고 말아 꼬마농부로서 실패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땅과 함께 하면서 얻는 수확이 참 많습니다. 무릇 먹을 것을 주는 수확이외에도 땅이 주는 또 다른 수확을 아이들은 참 많이도 느낍니다.

땅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 무당벌레, 애벌레등을 찾아내며 신기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자연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집을 짓고 자기



만의 역할을 해내며 살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지요.

8월, 우리 밭에 600포기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배추는 겨울철 김장을 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내어질 것입니다. 어제 밭으로 풀 뺏으러 가는 길에 4학년 동기가 이야기합니다.

“1학기 때는 농사짓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해요.”

“왜?”

“배추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나누어줄 거니까 농사가 잘 되어야죠.”

기특함에 흐뭇한 웃음이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여 배운 나눔과 배움 교육이니

이 아이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오늘은 오자마자 다래 따 먹으러 가자며 졸라댑니다. 언젠가 숲 근처 다래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며 “한국키위인데 아주 달고 맛있단다. 추석 지나면 따 먹을 수 있을 거야.”

했던 그 말을 용케도 기억합니다. 모두들 자전거를 이끌고 계곡의 다래나무 밑으로 갑니다. 숲 덤불을 헤치니 살포시 내려앉아 있는 다래들이 많습니다. 껍질째 집어 들며 아주 맛있다며 좋아합니다. 숲 속 자연이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아먹을 줄 아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희망이다’, ‘농촌이 희망이다’를 다시 한 번 느끼며 아이들과 보내는 일상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요, 7010세대공감프로젝트

2006년 7월 50여명의 자원 활동 대학생들이 45일간을 밤낮없이 뚝딱대며 팔랑리에 네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중 두 채는 독거노인이 살고 계시고(이분들 살아생전에 뜨는 물 나오는 부엌에서,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 게 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채는 우리 학교, 한 채는 귀농인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건축가 선생님이 집을 지어주셨다면 저희 학교의 역할은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지요. 농촌마을 집 짓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도시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 활동입니다. 철딱서니학교는 7010세대공감프로젝트로 소농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펼칩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 십대에서 오십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어울림으로 ‘세대공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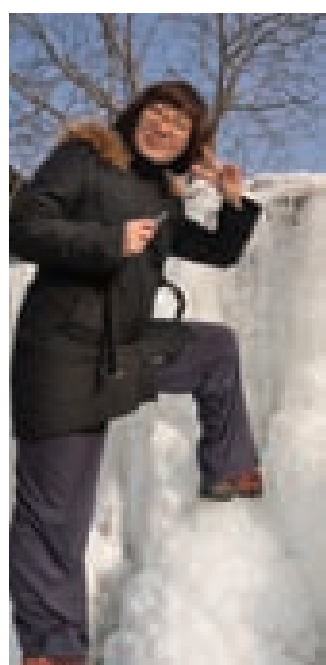
나와 내 자식이 먹을 것을 농사짓는 소농들이 사라져 가면 우리 아이들은 진정 소중한 흙을 만져 볼 기회도 밭아 볼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갈 것 입니다. 근원에 대한 물음 없이 목적으로만 가고 있는 현재의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농촌마을에서 찾아보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울곧게 땅을 일구며 살고계신 어르신들이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연이 있는 곳이기때 좀 더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형태나 성질을 본연의 모습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

고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간직한 본래의 가치를 찾아 내 안의 자유, 열정 그것은 나! '세대공감' 이 철딱서니학교의 주제어입니다.

서울아이 1가족과 농촌할머니 1가족이 자매결연

철딱서니학교는 산촌유학을 하는 곳입니다. 산촌유학은 도시아이들이 1년 이상 삶의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와 좀더 아이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공익적인 교육활동입니다.

2006년 양구에 제 1학교를 개설하고 2009년 양양에 제 2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양양에서는 22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년 동안 농촌으로 삶의 거주지를 옮겨와 엄마아빠가 아닌 선생님들과 생활을 합니다. 편식이 심했던 아이, 언어사용이 무분별했던 아이, 자기 고집만 피우던 아이, 사회성이 떨어지던 아이... 1년이 시간이 지난 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교육이란 혼의 짝을 띄우는 일이고, 인격의 틀거리를 잡아주는 일이고 문화인간의 자기발견의 실마리를 골라주는 일이다(함선생님)'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22명의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십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이곳으로 유학 온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지요. 서울아이 1가족과 농촌할머니 1가족이 자매결연을 통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을이 아이들을 키웠지요. 그 예전의 지혜를 담아 마을전체가 아이들을 품어 기르고 있습니다. 22





밭과 개인밭의 경작을 열심히 참여합니다. 모르는 것은 할머니댁에 가서 영농수업도 받고 오지요!

삶이란, 한 번의 체험과는 다르지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체득이 되는 것이지요.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요즘, 전통문화를 계승하자라는 취지를 내걸지 않고도 1년은 온전히 농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된장 담그기, 과줄 만들기, 감자개떡 만들기, 냉이전부치기, 쑥개떡 만들기, 꽃감 만들기, 김치 담그기...등 많은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어린이문화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복합적으로 얹혀있기에 옹고 그림이 나 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몸소 체득해갑니다. 어제는 6학년 친구와 4학년 친구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들어보니 아이들 사이의 딱지치기더군요. 서로 즐겁게 딱지치기를 하던 중 6학년 아이가 계속 딱지를 잃으니 화가 나서 4학년 아이를 때렸습니다. 맞은 4학년 아이는 억울하니 대 들고 그러다가 서로 치고 막고 싸움이 일어난 거지요. 공동체에서 해결해야할 일하기에 모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6학년 형이 잘못했다고 여론이 형성되었지요. 그렇게 여론이 마무리될 즈음! 어린 3학년 아이가 다소곳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6학년 형도 이해가 되요. 나도 동생과 놀 때 내가 지면 화가 나서 동생을 때리기도 했어요. 지금 들으니 잘못된 거 같아요.” 모두들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3학년 아이의 말에 동감도 하지요. 한번쯤은 그런 적이 있을것이지요. 싸움을 일으킨 6학년 친구는 그제야 마음을 내려놓고 울먹울먹 합니다. 자기가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흥분상태겠지요. 22명중 1명의 이해지만 자기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늘 패배만 하던 아이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 친구는 다음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한 자락이 생겨났을 거라 믿습니다.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웁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더 참아보는 센스를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누가 옹고 그른 것이 아이들 사이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지요. 자기주도생활습관

명의 많은 아이들이 다 예쁘지만 그중 내 손주는 더욱 더 예쁘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 손주 몰래 데려다 먹이든 동네 어르신들!

사회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깨져가고 있지만 이 작은 마을은 오래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어르신 모두가 농부들인 만큼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소똥거름 내는 일부터 감자논 따는일, 감자 심는 일까지 공동





에 의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어린이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철딱서니학교입니다. 자유는 자기 것이지만 방종이 되지 않게 책임을 지는 것도 자기 몫이지요.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서로간에 수치심이 생기지 않게, 놀림을 받지 않게, 적대감을 갖지 않게, 무조건 비난은 하지 않게 잘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하고, 잘한 일은 칭찬하면서 서로에게 공평함이 가도록 인성지도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정신적인 내면의 성숙으로 도시로 돌아가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커깁니다. 공동체의 기본약속인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주지 말자'라는 아주 쉽고 단순한 진리만 지켜진다면 아이들의 무엇을 해도 좋은 그런 곳이 철딱서니 공동체입니다.



김현덕 철딱서니 학교 산촌유학센터장



철딱서니학교를 여는 마음

▶ 나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공경심

철딱서니학교는 모든 생명에 대한 공경과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동물, 식물 등 모든 것들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공존해야 하는 생명들입니다.

▶ 몸마음이 자유로운 아이들

아이들 스스로가 자연과 호흡하고 또래 아이들과 부대끼며 느끼는 그대로 느끼면 그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끄는 데로 가장 자연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됩니다. 여름이면 냇가로 숲속으로 동네골목길로 햇볕 쬌이는 이곳저곳에서 땀 흘리면서 뛰어놀고 겨울이면 눈 타고 얼음타고 손 호호불면서 옷 속에서 김나도록 운동하고 놀면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아이들의 몸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쉽게 규제에 따른 통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임을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언가 필요하다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고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어른들의 믿음이 자유로운 아이들이 있게 합니다.

▶ 자연적인, 생태적인 몸과 마음

철딱서니학교는 개인적인 문화에 경시되고 있는 나와 우리들을 생명 가득한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시키는 곳입니다.

현재 사회는 아이들을 물질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사회의 소유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철딱서니학교아이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넉넉함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밀친과 원동력을 쌓아가는 소중한 배움터며 나눴습니다.

▶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철딱서니학교는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대안공교육의 장으

로 도농교육, 문화, 복지교류의 장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잠시 동안의 교감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쉽게 행동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형상(images), 긍정적인 말(words), 긍정적인 느낌(feeling), 긍정적인 신념(belief)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들 스스로의 판단과 삶을 존중하며 철이 들어가는 나눔당입니다.

▶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와 세대간의 세대공감

철딱서니학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남을 갖는 세대간의 배움터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주는 넉넉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을 따르고 함께하는 아이들 서로간의 몸마음 치유의 만남의 장이 됩니다.

철딱서니학교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 몸도 그렇게 닳아간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이들의 희망의 힘들은 미래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만남이 될것입니다.

철든 아이들이

철난 어른이 되고

철(哲)인이 된다.

_ Season Discretions School

철에 맞추어 웃도 입고

철에 맞추어 몸과 친한 음식도 먹고

철에 맞추어 논다.

_ A Spontaneous Cure School Of Health & Spirit

철따라 변하는 자연과 만나고

철마다 생기는 자연과 만나고

철마다 몸마음이 자연과 만난다.

_ Eco - Experience

공동체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하고 이야기하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식구가 되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식구가 되는데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가요?
여럿이서 함께 살다보면 의견이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길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나요? 농사지어서 수익이 생기면 나누어 갖나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체.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곳.

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의 울타리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곳이지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체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 ● 변산공동체

공동체에 찾아오는 손님들,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공동체 식구로 살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돈은 한 톨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변산공동체는 개인후원도 돈으로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변산공동체에서 6개월 이상 식구로 같이 지낸 사람들이 백여 명이 넘는데요, 어느 누구도 돈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처음 공동체에 들어 올 때는 농촌생활에 꼭 필요한 짐 보따리 한두 개만 짊어지고 와서 농사일 배우고 농촌살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서 자기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변산공동체에 처음 올 때 옷가지 몇 개 들어가는 배낭하나 달랑 메고 왔는데 공동체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여 지금은 열한 살 된 사내아이도 키우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모아둔 돈을 공동체 살림에 보태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중히 거절을 했습



니다. 사람 마음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공동체에서 십년이상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받아주마 그랬지요. 결국 그 친구가 십년을 못 채우고 독립을 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돈을 받는 일은 없었지요. 공동체에 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2~30대 처녀, 총각들입니다.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다 싶어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사짓고 살고 싶은데 돈 한 톨 없어도,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요. 그러던 와중에 어

떤 친구는 변산공동체가 소개된 책을 읽고 찾아오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찾아오고, 또 요즘엔 인터넷에 변산공동체를 다녀간 손님들이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한 글을 보고 찾아와서는 같이 식구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지으며 사는 곳이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지요.

공동체 식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부지런하고, 착하고, 열심히 몸을 돌려 일해야 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어야 공동체 식구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려면 첫째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농약 안치고, 화학비료도 안 쓰고, 비닐도 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밥 먹고 살기 힘들니다. 제때에 씨 뿌리고, 제때에 김매주고, 제때에 거두어 들여야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에서는 웬만하면 큰 기계를 쓰지 않고 몸으로 직접 일을 합니다.

집도 식구들 손으로 지어야하고, 방을 데우는 것도 기름보일러가 아닌 구들방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땀나무도 해와야 하지요. 그러니 농사일 힘들다고 몸 아끼면 농사 망치기 쉽고 몸 움직이기 귀찮다고 산에 가서 나무 안 해오면 겨울에 춥게 살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바보이반의 이야기"라는 단편소설을 보면 바보이반의 나라에서는 손에 못이 박혀있지 않는 사람은 식탁에 앉히지 않고, 남은 음식찌꺼기를 나누어 준다는데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몸뚱아리를 부지런히 놀리라는 이야기겠지요.

공동체 식구들 한명 한명이 자라고,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다릅니다. 다들 개성이 아주 뚜렷하지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려면 마음씨가 착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지요.

자기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엔 공동체 식구로 오래 남아있지 못합니다.

공동체식구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달라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공동체 초기에는 식구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잦았습니다. 모두들 농사일이 처음인지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곤 했지요. 공동체생활도 정해진 규칙이나 틀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저마다 달라서 공동체를 비판하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공동체 규칙도 나름대로 정해졌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자리를 잡아 이제는 공동체 살림살이가 안정이 되어서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녁을 먹고 작업회의를 하면서 내일 할 일을 정하고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식구들도 공동체생활에 큰 탈 없이 적응하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경험에 상관없이 학력과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일을 결정하지만 농촌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일을 결정하게 되지요.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온 칠십 넘은 어른들도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될지 망치게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자연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농사이기 때문이지요. 경험이 짧은 초보농사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자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오랜 경험을 통해 몸에 익힌 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공동체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삼년동안은 자신

전라도 변산이란 외진 땅에 자기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웃으며 열심이 땀 흘리는 어른들이 있고,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도시에서의 삶과 농촌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또 공동체생활은 일반 가정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라는 뜻이지요.

농사지에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나누지요?

나누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재산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거쳐 간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1995년도에 변산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도우러 왔고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구로 같이 살면서 지금의 살림살이를 일구어 왔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의 보탬이 없었다면 변산공동체가 지금처럼 탄탄한 살림살이를 꾸려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은 이전 식구들이 일구었던 살림을 조금씩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나중에 공동체에서 식구로 살게 될 사람들은 지금의 식구들이 일구어 놓은 살림을 나눠쓰게 되겠지요.

공동체에서 삼년을 살다가 독립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공동체가 가진 땅 일부를 빌려주기도 하고, 일 년 먹을 식량을 나눠주는 합니다만 돈으로 나누어 갖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귀농을 하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아이들 교육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기가 힘들고, 본인들은 농촌에 내려와 살면서 자식에 대한 미련은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산공동체 안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은 기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한 아이들만 받고 아이들 수업도 학부모들이 맡아서 합니다.

국어·수학·역사·바느질·풍물·검도·미술·체육·농사일 배우기·도자기 등 수업은 다양하지만 뛰어노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억지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 아직 구구단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걱정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몸을 제대로 놀릴 수 있기를 바랄뿐이지요.

중등, 고등은 공동체 안에서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지만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 경우는 2주간 공동체에서 지내보고 본인이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우리학교는 입시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으니 동의하면 보내라고 하지요. 교육비는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신 아이들도 농촌살림을 도와야한다고 말하지요. 중등학생들은 수업과목이 초등에 견주어 조금 많지만 중등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초 살림살이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농사도 지어야하고, 산에 가서 땀나 무도 해야 하고 빨래도 직접 해야 하고, 밥 짓는 것도 도와야 합니다.

다만 영어·수학 등 지식교육은 본인이 원하면 동아리형태로 그룹을 지어 수업을 하지 정규과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등부는 정해진 수업의 틀이 없습니다. 올해는 전기도, 자동차도 들어오지 않는 산속에 텐트치고 살면서 가미솔에 밥해 먹으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집짓기가 마무리되면 각자 배우고 싶은 것을 정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시험을 한 번도 치

르지 않는 학교, 제 앞가림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혼자만 잘사는 사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도시보다는 농촌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이 되자. 변산공동체학교의 교육목표인데 아이들은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산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물음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보다는 훨씬 풍부한 삶이 공동체 안에 녹아 있지만 짧은 글로 다 나타낼 수는 없겠지요.

변산공동체가 세워진지 올해로 16년이 되어갑니다.

종교도 이념도 없는 생활공동체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자리를 지켜나가는 예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런 공동체 생활방식을 찾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겠지요. 전라도 변산이란 외진 땅에 자기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웃으며 열심히 땀 흘리는 어른들이 있고,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3박4일 일정으로 일손 도우러 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김희정 변산공동체 대표



성남, 분당 한산이씨 중앙공원

한산이씨의 시조는 고려의 호장(戶長) 윤경(允卿)이며, 증시조는 목은(牧隱) 섹(穡)의 아버지 기정(稭亭) 곡(穀)이다. 부자(父子)가 원(元)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했고, 당대의 대문장이면서 석학이다.

목은의 벼슬은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변계량(卞季良) 등의 학자와 명신이 배출되어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인 개(愷), 명종과 선조 및 인조 때에 와서 이지번(李之蕃)이 세상을 은둔하여 높은 절조가 있었고, 선조 때의 대문장인 산해(山海), 경전(慶全)이 있었는데 모두 그 문장과 벼슬로 사책(史冊)에 올라 있다.

한산이씨는 조선에서 문과 급제자 195명, 상신 4명,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공신 12명을 배출하였다. 2000년 인구조사에서 4만 2005가구에 13만 66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수내동 중앙공원 일대는 한산이씨의 집성촌이 있었으며, 250년 이상의 나이테를 가진 느티나무 보호수(지정번호: 경기성남-10)가 이 마을의 오랜 역사를 증명한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8호인 '수내동가옥'은 조선후기에 건립된 민가의 살림집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약70호 가량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중 한산이씨는 30여 호 가량 되었다.

공원 내에 있는 한산이씨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16호)은 『토정비결(土亭秘訣)』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이 그의 조부인 이장윤의 묘역을 이곳에 정한 이후로 16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약 26명의 인물 묘역이 조성되어 묘제 및 석물 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봉화현감을 지낸 이장윤(李長潤, 1455~1528)은 천성이 너그럽고 어질며 겸손하고 후덕해서 평생에 말을 빨리 하거나 노여워하는 빛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불쌍히 여기는 일에 힘썼다.

일찍이 말하기를 “대체로 관리가 된 자는 그 아랫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대로 두고 생각하면 내 노여움이 풀리는 것이니 갑자기

사람을 상하게 하는 조짐이 없게 해야 한다.” 하니 사람들이 격언(格言)이라고 했다.

손자 지함(之涵)은 세상에서 토정선생이라 일컬었고, 증손은 영의정 산해(山海)요, 이조판서 산보(山甫)이다.

이 질(李秩, 1473~1560)은 장운의 장남으로 상주·울진 등 7개 군의 군수를 역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80세가 넘었음에도 뜻과 지혜가 명민(明敏)했으며, 필력(筆力)도 건강하였지만 경제적 형편은 어려웠다. 중앙공원의 <봉화공 삼세이하 유사비>에 “제사를 지낼 때면 가난해서 제사를 잘 차리지 못하였사오니, 원컨대 자손이 영화롭게 되면 근본에 보답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증(李增, 1525~1600)은 이질의 손자이며, 1589년 정여립의 난을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 3등이 되고 아천군(鵝川君)에 봉해졌다. 예조, 형조, 공조 판서와 의정부의 좌우참찬을 역임하였고, 임진왜란이 직전에는 전쟁에 대비하기를 주장하였다.

세상을 뜬 후 영의정에 추증되어 ‘부조묘(不祧廟) 사당이 건립되었고, 문집으로는 『북애시고(北崖詩稿)』가 있다. 묘표의 이수에는 쌍룡이 연꽃 속의 여의주를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돌을 새김 하였고, 작은 원 안에는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증의 아들 이 경 류(李慶流, 1564~1592)는 임진왜란 때 병조좌랑으로 상주 북쪽 증연(甄淵) 전투에서 전사했다.

왜적들이 포환(砲丸)을 일제히 쏘아대

살아서는 청백(淸白)한 지조가 있었고 죽어서는 시체를 염(殮)할 기구가 없었으며, 또 늙은 어머니가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

며 좌우에서 에워싸니 병졸들이 겁에 질려 활을 쏘면서도 시위를 한껏 당기지도 못했다. 종사관인 홍문관 교리 박지(朴箕)·윤섬(尹暹), 방어사 종사관인 병조 좌랑 이경류, 판관 권길(權吉)이 모두 이 전투에서 죽었다.

2년 후 선조임금이 도원수의 종사관 이경함에게 묻기를, “이경류가 그대의 동생인가?” 하니, 경함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당초 싸움터에서 죽었다고 하여 내가 매우 애도하였는데 지금 그대를 보니 갑자기 그가 생각나는구나. 누구의 종사였으며 어디서 죽었는가?” 하니, 경함이 아뢰기를, “변기(邊機)의 종사관이었고, 영남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섬과 박지도 모두 그때 죽었다. 그들은 평일 시종하던 신하들이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금할 길 없다.” 하였다.

특히 윤섬, 박지, 이경류 ‘3종사(從事)’는 문관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었고, 더구나 이경류는 형을 대신하여 자원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였다. 정조 16년(1792) 12월 14일 상주 유학 맹진태(孟鎭泰) 등이 상소하기를, “세 신하가 맨주먹을 들어 힘껏 치다가 힘이 다하여 적을 꾸짖으며 죽어갑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 땅을 이름하여 학사담(學士潭)이라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고향집에서는 이경류의 말이 피 묻은 옷과 유서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가 전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은 500리 길을 달려와 주인의 소식을 전한 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죽고 말았다. 이경류는 사후 홍문관 부제학에 추증되었고, 상주의 충신사단(忠臣義士壇)에 제향되었다. 1727년(영조 3) 정려비가 세워졌고, 이경류 묘역 아래에는 충직한 말의 무덤이 있다.

정조 20년에 청백리에 녹선된 이병태(李秉泰; 1688~1733)는 언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 영조임금이 호랑이 가죽을 내려 주기도 했다. 1727년(영조3)에 호조참의로 있을 때, 탕평책(蕩平策)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려 파직 당했다.

그 이후로는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합천에 부임했을 때에는 선정을 베풀어 합천의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춘추로 제향하였다.

몹시 가난하여 사는 집은 비바람을 가릴 수도 없었으니, 임종한 후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영조에게 아뢰기를, “굶어 죽었다.”고 했다. 청렴결백함이 뛰어나 숙수(菽水 = 콩과 물, 변변하지 못한 음식)를 이어대지 못하였는데도 그의 지조는 변하지 않았다.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살아서는 청백(淸白)한 지조가 있었고 죽어서는 시체를 염(殮)할 기구가 없었으며, 또 늙은 어머니가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고 아뢰어, 고(故) 감사 한 지(韓祉)의 전례에 따라 그 어머니를 보살피 주기를 청하자, 임금이 애석하게 여기며 한참을 낫 없이 있다가 구휼하는 은전을 베풀고 증직하며 장례를 치르게 하라 명하였다.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에 추증하고 문청(文淸)이란 시호를 내렸다.

홍수원(洪晔元)은 홍익한의 아들이다. 성품이 효성스러워 부친이 악성종기로 병을 앓아 매우 위태로울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 대변을 받아내는 등 온갖 정성으로 간병하였다.

홍수원의 묘역이 한산이씨 묘역에 있는 것은 부인이 이학의 딸인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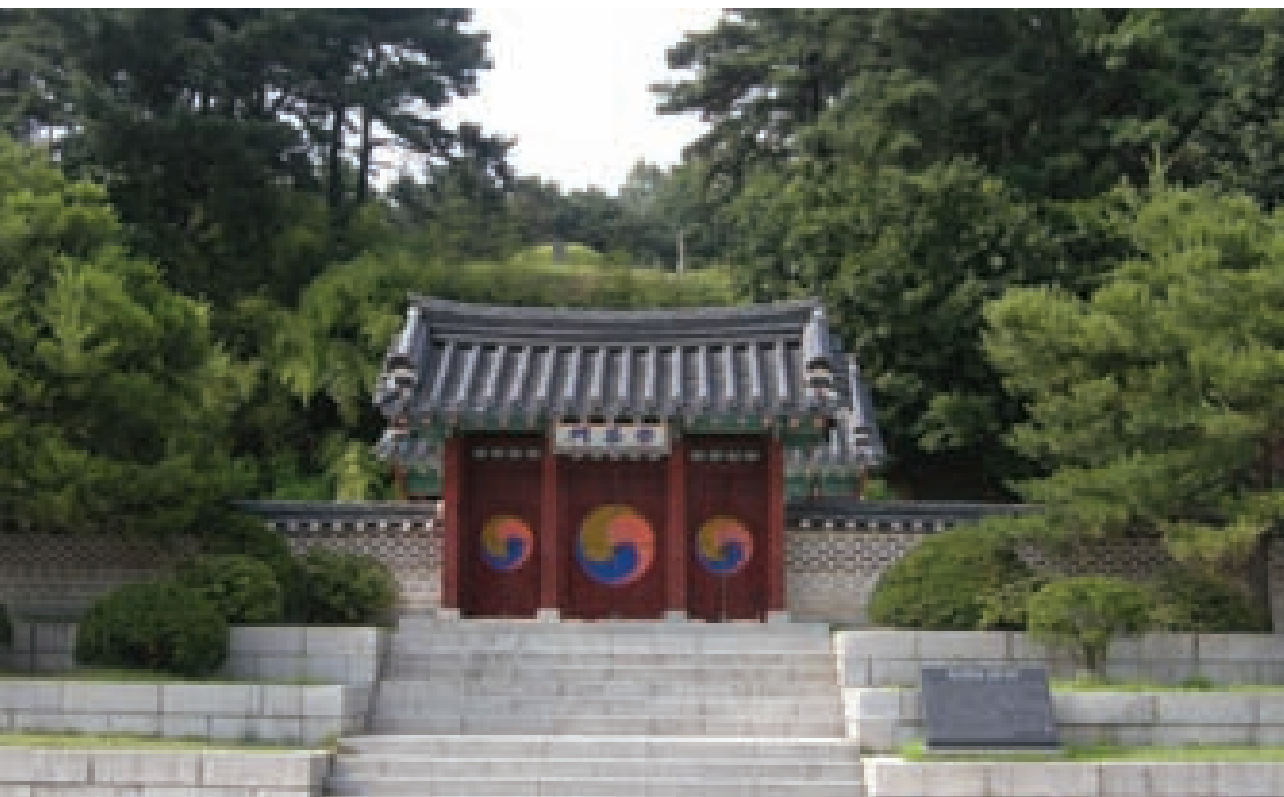
한편 묘소와는 별도로 그의 묘표가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아버지 홍익한의 묘석과 함께 보존되어 있는데, 묘표가 이렇게 평택시에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다.

1683년 4월 23일, 숙종 임금에게 예조판서 남이성(南二星)이 말하기를, “강희도가 함몰될 때에 홍익한의 후처인 허씨는 적을 만나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아들 홍수원은 팔을 벌려 허씨를 가리다가 칼에 찔려서 죽고, 허씨는 마침내 물에 뛰어들어 죽었으며, 홍수원의 처 이씨도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었습니다.

이 일은 송시열이 지은 홍익한의 묘문(墓文)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 그 말이 어찌 믿을 만하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김수항이 말하기를, “홍익한은 몸소 대의를 부지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충효와 의열이 모두 한 집에 모였으니, 특별히 숭상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울러 세 사람을 정문(旌門)하도록 명하였다.

이장윤의 증손 산해가 출생하였을 때 작은 아버지 토정(土亭)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문(家門)을 일으킬 자는 바로 이 아이일 것이다.” 하였다.



나면서부터 자질이 특이하여 말보다 글자를 먼저 알았다. 집에 동해옹(초서체로 이름을 날린 명나라의 張弼, 1425~1487)의 초서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유모의 손을 끌어다 안아서 보여 달라고 하더니, 좋아하면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쓰곤 하였다.

다섯 살에 비로소 글을 배웠는데 토정 이 태극도(太極圖)에 대하여 한 마디가 르치면, 곧장 천지(天地)와 음양(陰陽)의 이치를 알아차려서 태극도를 가지고 논설할 줄 알았다.

일찍이 먹는 것도 잊고 글을 읽자, 토정이 흑시라도 몸을 상할까 염려하여 읽던 글을 덮어두고 식사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였더니,
공이 시를 짓기를,

배가 고픈 것도 민망한데
항차 마음을 주리게 하라
腹飢猶悶況心飢

식사가 더딘 것도 민망한데
항차 배움을 더디 하라
食遲猶悶況學遲

집이 가난해도 오히려
마음을 치료할 약이 있거니
家貧尙有療心藥

영대에 달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네
須待靈臺月出時

하니, 토정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다. 여섯 살에 큰 글자를 쓸 줄 알았는데, 붓을 잡고 비틀거리면서 휘둘러 써 놓은 글자 모양이 썩썩하고 품위가 있어서 마치 용이 서려 있는 듯, 호랑이가 덮치려는 듯한 형상이었다. 당시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산해의 글씨를 받아 가려고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모두가 신동(神童)이라고 일컬었다.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자, 고시관이 그의 시권(試券)을 잘라내어 가지고 가서 보물로 삼기도 하였다.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共通禮節

공동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하는 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무릎을 벌리고 가부좌(跏趺坐)해 앉아서 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두 다리의 무릎 아래 정강이를 X자형으로 교차시켜 앉고 서야 하는데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절하는 중간에 몸이 흔들리고 위치가 이동되는 등 매우 거북하고 불편하다. 그에 반해서 예서(禮書)에 있는 대로 한 무릎씩 차례로 두 무릎을 꿇고 앉고 서면 힘들지 않고 편리하다.

여자의 큰절 숙배(肅拜)는 우리나라의 절이라 우리나라 학자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었고, 여자의 평절은 원래 중국의 숙배인데 우리나라의 숙배보다 하기가 쉬워서 여자의 평절로 하는 것이라 중국 학자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모두 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으로 되었다.

특히 긴 치마를 입고 두 무릎을 벌리고 앉아 절을 하면 앉고 서기는 불편하지만 절의 모습은 그냥 괜찮은데 요사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자가 어른 앞에서 두 무릎을 벌리고 앉으면서 절을 하려면 매우 거북하고 어른에게 황당한 앞모습을 보이게 되어 조심스럽기가 그지 없다.

여자들이 남의 정면 앞에 앉을 때는 두 무릎을 벌리고 앉는 것을 피하면서 절을 할 때는 두 무릎을 벌리고 앉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한 상가(喪家)에서 조문(弔問)하는 여자의 절모습을 보면 두 무릎을 꿇고 남자의 절을 하는데 그것은 여자가 두 무릎을 벌리고 앉아서 절하기가 거북해서 남자의 절을 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 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제 여자의 바른 절을 알아서 상가의 조문에서도 남자의 절을 하지 말고 여자의 절을 해서 “절할 줄도 모른다”는 부끄러운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여자의 절

1) 여자의 큰절, 숙배(肅拜)의 기본동작

여자의 큰절 숙배는 원래 무장을 한 군인이 진중(陣中)에서 군례(軍禮)를 할 때에 하던 절인데 이것이 여자의 큰절로 행해지고 있다.

- ① 절할 대상을 향해 서서 공수한 손을 어깨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린다.(너무 올리면 거드랑이의 맨살이 보인다.)(그림 2329-1①)
- ② 고개를 숙여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인다.(엄지 안쪽으로 바닥을 볼 수 있게 한다.)(그림 2329-1②)
- ③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그림 2329-1③)
- ④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그림 2329-1④)

두 무릎을 벌려 가부좌(跏趺坐)해 앉으려면 두 정강이가 X자형으로 엇갈려 체중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앉고 서기에 힘이 든다.

한 무릎씩 굽혀서 앉고 서면 편리하다. 또한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절할 때는 무릎을 벌리고 앉기가 불편해 자연스럽지 못하다.

⑤ 오른쪽발이 앞(아래)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그림 2329-1)

⑥ 두 엄지 발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두 발등을 바닥에 붙여도 좋다.

⑦ 윗몸을 반(45~60도)쯤 앞으로 굽힌다. (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자가 머리를 깊이 숙이지 못하는 것은 머리에 얹은 장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된다.) (그림 2329-1⑥)

⑧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그림 2329-1⑦)

⑨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다. (그림 2329-1⑧)

⑩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그림 2329-1⑨)

⑪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내린다. (그림 2329-1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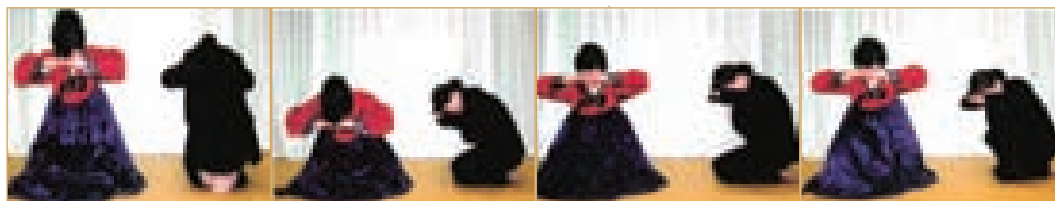


2329-11 여자 큰절 공수손을 올린다

2329-12 이마를 숙여 손등에 댄다

2329-13 원무릎을 먼저 굽는다

2329-14 오른쪽 무릎을 굽는다



2329-15 발을 포개 깊이 앉는다

2329-16 상체를 반쯤 숙인다

2329-17 상체를 반듯이 세운다

2329-18 오른 무릎을 세운다



2329-19 몸을 일으킨다

2329-20 공수한 손을 내린다

2. 여자의 평절, 평배(平拜)의 기본동작

여자의 평절은 원래 중국여자의 큰절인데, 우리나라의 큰절보다 수월하므로 우리나라 여자의 평절로 하고 있다.

① 공수한 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린다. (그림 2329-2①)

- ②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그림 2329-2②)
- ③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그림 2329-2③)
- ④ 오른발이 앞(아래)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그림 2329-2④)
두 엄지 발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두 발등을 바닥에 붙여도 좋다.
- ⑤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모아서 손끝이 밖(양 옆)을 향하게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댄다.(그림 2329-2⑤)
- ⑥ 윗몸을 반(45~60도)쯤 앞으로 굽히며 두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어깨가 치솟아 목이 묻히지 않도록 팔굽을 약간 굽혀도 괜찮다.(그림 2329-2⑥)
- ⑦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며 두 손바닥을 바닥에서 뺀다.(그림 2329-2⑦)
- ⑧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며 손끝을 바닥에서 뺀다.(그림 2329-2⑧)
- ⑨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은다.(그림 2329-2⑨)
- ⑩ 공수하고 원자세를 취한다.(그림 2329-2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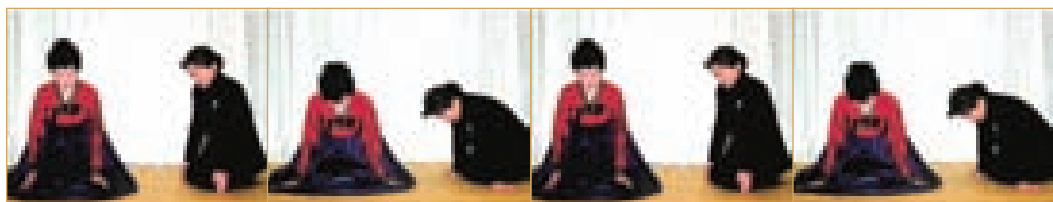


◆2329-2① 여자 평절 공수를 푼다

◆2329-2② 왼 무릎을 먼저 꿇는다

◆2329-2③ 오른 무릎은 꿇는다

◆2329-2④ 깊이 앉는다



◆2329-2⑤ 손끝을 바닥에 댄다

◆2329-2⑥ 윗몸을 반쯤 굽힌다

◆2329-2⑦ 윗몸을 일으킨다

◆2329-2⑧ 오른 무릎을 세운다



◆2329-2⑨ 일어나면서 공수한다

◆2329-2⑩ 공수하고 반듯히 선다

3) 여자의 반절, 반배(半拜)의 모습

여자의 반절은 평절을 약식으로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다.(그림 2329-3①)

답배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낮은 사람이면 남녀 모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바닥을 짚는 약식 반절로 답배한다.(그림 2329-3②)

손녀의 친구와 같이 아주 어린 사람에게나 또는 답배할 어른이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앉은 채로 한 팔만으로 바닥을 짚어 주기도 한다.(그림 2329-3③)



◆2329-3① 여자 반절, 무릎 꿇지 않는다 ◆ 2329-3② 앉은채로 두손만 짚는다 ◆ 2329-3③ 앉은채로 한팔만 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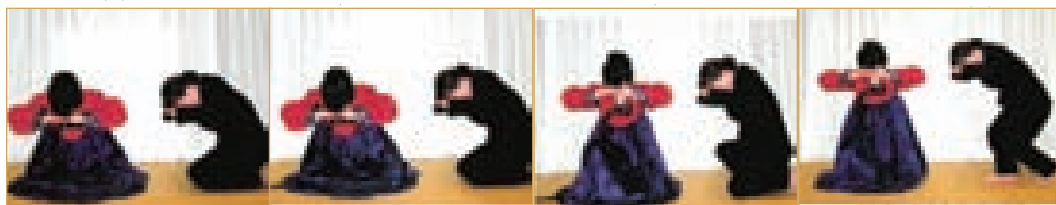
4) 여자 고두배(叩頭拜)의 의미와 기본동작

■의미: 옛 예서에는 여자의 고두배에 대하여 기록이 없다. 여자는 임금에게 절할 일이 없어서이다. 그러나 현대는 여자도 성균관이나 향교의 대성전에서 공자의 위패에 절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의 '大成至聖文宣王에 대한 拜禮에 관한 規程'의 제8조에 여자의 고두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전8항 남자의 절 5) 남자의 고두배의 의미와 기본동작 참조)

현대에는 여자들도 전국 각처에 있는 서원을 봉심(奉審, 참배)하기도 한다. 공자가 아닌 다른 선생님에게는 임금에게나 하는 고두배를 하면 안되고 일반 제의례에서 절하듯이 큰절을 4배를 해야 한다. 공자가 아닌 다른 선생님에게는 큰절을 겹절로 하는 것은 남자의 경우와 같다.

■기본동작:

- ①-⑤ 여자의 큰절 기본동작 ①번에서 ⑤번까지와 같다.
- ⑥ 여자의 큰절 ⑥번 동작과 같이 윗몸을 반쯤(45~60도) 앞으로 굽힌다.(그림2329-4①)
- ⑦ 잠시 머물고 윗몸을 반듯하게 세운다.(그림2329-4②)
- ⑧ 6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2329-4①)
- ⑨ 7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2329-4②)
- ⑩ 6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2329-4①)
- ⑪ 7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2329-4②)
- ⑫ 6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2329-4①)
- ⑬ 윗몸을 일으키면서 오른 무릎을 세운다.(그림2329-4③)
- ⑭ 일어나면서 두 발을 모으고 이어서 원 자세를 취한다.(그림2329-4④)



◆2329-4① 여자고두배 윗몸 굽힌다 ◆2329-4② 윗몸을 일으킨다 ◆2329-4③ 오른 무릎을 세운다 ◆2329-4④ 일어나며 두 발을 모은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서울시지회

2010 서울시지회 정기총회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문화원 발전 위해 참석



3월23일 오후 6시, 프레지던트 호텔 18층 산호실에서 2010년 서울시지회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5개 문화원 원장이 전원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서울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다음일정 때문에 대신,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을 정기총회에 참석 시킨다면서 정기총회가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한후 행사장을 먼저 떠났다.

이후 김종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영섭 지회장의 주제 하에 2009년 결산안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 후 의결하였다. 특히 신규예산인 지역문화활동지원사업비 2억의 사용방안에 대한 토의와, 서울시 문화원 역할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문화원 실태조사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동래문화원

제91주년 동래3.1독립만세재현행사
백일장 문집 발간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은 동래3.1독립만세재현의 부대행사인 학생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상작들을 모아 백일장 문집을 200부 발간하여 관내 초·중등학교 도서관과 동주민자치센터, 새마을문고 등에 배부하였다. 이번 3.1절 기념 백일장에는 초·중등생 300여명이 참여 하였으며, 3.1절 관련 글짓기를 문문, 신문으로 나누어 경연하였다.

성남문화원

2010, 1차 향토유적지 순례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어우러짐

지난 4월 8일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2010년 특색사업으로 마련한, '2010, 제1차 향토유적지 순례'를 충북 단양과 강원 영월로 다녀왔다. 이날, 40명의 성남시민들이 모여, 단양팔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손꼽히는 도담삼봉과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 사찰인 구인사, 마지막으로 영월 선암마을을 한반도 지형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유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자세한 문화해설로 진행된 이번 유적지 순례는,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짐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포천문화원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규)은 지난 2월 26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고문 및 자문위원, 임,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기아스콘 대표 이만형님과 현대에너지 대표 현병근님에 대한 자문위원 추대패 증정과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원 발전에 공이 많은 임한빈님, 최창근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만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는 물질적 성장 못지않게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고 이룩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값진 목표이며 또한 이상'이라고 말하고 '우리 포천문화원에서도 이렇듯 아름답고 숭고한 문화의 꽃이 우리지역에서 그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매진 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감사보고와 사업실적 보고,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및 세입, 세출 예산 승인의 심의 인건과 문화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포천문화원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학교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비롯하여 향토문화연구소사업, 제24회 반월문화제를 한시백일장, 전국휘호대회 등과 연계하여 종합문화행사로 개최하고, 포천문화, 문화사랑 책자발간,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 등의 행사와 전통 민속자료 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좋은 책 읽기운동 전개, 1사 1문화재 결연사업,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단운영,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등 올해의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 문화의식 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봄이 오는 소리, 꽃·나비 사진 전시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3월 18일 포천시 여성회관 2층 전시실에서 문화원 임원 및 문화계 인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꽃·나비 사진 전시회 개전식'을 가졌다. 이날 개전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계절이 봄이기는 하나 삭막한 겨울 분위기를 속에서 꽃과 나비사진 감상을 통해 봄 소식을 미리 맞이해보자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된 작품은 사진자료를 협조해준 문화관광해설사 한용씨와 사진작가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이 촬영한 꽃사진과 나비사진 50여 점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꽃사진 전시회는 포천시 여성회관 2층 전시실에서 3월 24일까지 전시되며, 본 전시가 끝난 후 희망하는 관내의 학교 및 기관단체에 순회 전시를 할 예정이다.

2010 향토사연구위원 간담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4월 1일 향토사연구위원, 관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향토사연구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은 선비의 고장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있기에 이를 적극 개발하여 뿌리 깊은 전통으로 이어 나가고 우리 고장의 문헌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향토자료 제작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향토사 연구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10년도 향토사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포천문화원 2010년도 향토사 주요사업으로는 전통 민속자료 발굴 복원, '포천향토자료총람' 발간, 문화탐방 시터투어 및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향토사 바르게 알기경시대회 개최, '1사1문화재 결연 운동' 활성화,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포천의 옛 사진> 수집, 그리고 특히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찾아가는 포천 향토사 교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의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향토문화 정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 발굴 전승을 통한 현대문화 발전 방향 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2010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4월 3일 포천초등학교에서 제24회 반월문화제 연계 행사인 '제5회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문화원 임원,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포천교육청 이철웅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자금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이날 경시대회에서는 국가 지정, 경기도 지정, 포천시 지정의 관내 문화재 67점을 대상으로 출제되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당 5명씩 선발된 학생 210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날 개최된 경시대회 성적은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들의 엄정한 채점을 거쳐 제24회 반월문화제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함안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함안문화원(원장 조훈래) 제44차 정기총회가 2010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함안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많은 내빈과 2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훈래 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해야 할 일로 16개 사업과 3권의 책자 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세계 일등 국민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문화원이 중심에 서서 본연의 일에 힘써야 한다면서 함안문화원의 공간 개방과 젊은 층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원로들과의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거창문화원

2010년도 거창노인복합문화관 문화교실 개강식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3월 15일 거창군 노인회관 3층에서 문화원 임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문화교실 수강 신청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거창노인복합문화관 문화교실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국민의례, 문화원장 인사 및 내빈소개, 내빈축사, 감사소개, 문화교실 강좌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제2부에서는 정주환 문화원장으로부터 '인간성 오염, 무엇으로 치료하나'라는 주제로 정신문화특강이 이어졌다.

거창노인복합문화관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혈건강체험교실, 손쉬운 손바닥 운동교실, 노래교실, 민요교실(초·중급), 한시교실, 서예교실, 연극교실, 생활예절교실,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소의 주민들에게 여가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0년도 거창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3월 4일 거창군 교육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식전행사에서는

「소리타래」의 민요 판소리 공연으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였고, 1부 개최식은 개회, 국민의례, 원장 인사말씀, 내빈축사,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주환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문화원의 미래 터전을 다져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문화원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 후 김춘수 부군수, 이현영 군의회 의장, 백신중 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보고안건,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도 기관 및 사업운영 실적 보고와 2009년도 감사보고,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거창문화원 발간 도서 및 기념품을 배부하였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문화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제19회 거창대동제 개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거창읍 강변둔치에서 제19회 거창대동제를 개최하였다.

웃놀이 · 제기차기 · 투호놀이 · 줄다리기 대회 등 민속경연대회와 군민기원제,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행사와 불꽃놀이, 부럼 깨기, 떡먹이기, 쥐불놀이, 소원성취문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민속 웃놀이 대회에는 40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1등상은 송정리 할머니회 팀에게 돌아갔다.

대덕문화원

2010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원



대덕문화원에서는 (원장 송성현)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덕문화회관일원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한해의 액을 막는 액막이 고사, 강강수월래 공연, 웃놀이 · 비석치기 ·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루를 마련하였다.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대덕문화원은 지난 2007년 1개 사업 20개 일자리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2010년에는 6개 사업 1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3월 1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121명을 모시고 “2010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발대식은 ucc상영, 참여자 전원의 각오를 담은 선서문 낭독과, 2010년 노인

문화원이 모 저 모 NEWS

일자리 사업 소개, 실버멘토 참여자 어르신인 오카리나, 가야금 연주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문경문화원

후백제시왕 '견훤왕' 향사봉행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은 4월 10일 오전 11시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에 소재한 후백제시왕(견훤왕) 사당에서 2010년 향사를 거행하고, 문경지역이 낳은 한 왕조의 시왕에 대한 넋을 기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겼다.

견훤대왕 향사는 매년 4월 10일 이 사당에서 거행되며, 문경지역 저명인사들과 견썌종친회에서 헌관으로 천거되고, 많은 지역유림들이 참례하는데, 올해는 채희운 문경향교 전교가 초헌관으로, 권사문 유학이 아헌관으로, 견썌종친회장이 증헌관으로 천거되어 봉행되었다.

견훤왕의 본성은 이(李)씨로 알려져 있으며, 전주견씨(全州甄氏)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견훤왕은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아자개(阿慈介)로 농민출신 장군이었다. 892년(신라 진성여왕 6)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견훤왕은 광주(光州) 등 여러 성을 공격하고, 900년(효공왕 4) 전주에 도읍을 정하여 후백제를 세웠다.

견훤왕의 직명은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로서 47자에 이른다.

그러나 936년 고려로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후삼국 말기에 왕건의 공격으로 연산(連山)에서 죽고, 후백제 42년의 역사는 끝을 맺었다.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금하골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며, 이 전설에 근거하여 2002년 문경시에서 송위전(崇威殿)을 짓고, 매년 지역의 유림들로 구성된 문경문화원 송위전보존회에서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문경시 일원에는 견훤왕의 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농암면 궁기리의 조항산 궁터, 연천리의 말바우, 상주시 화북면의 견훤산성 등이 그것이며, 이는 견훤왕의 전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형성문화원

2010년 제11기 형성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 운영목표

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 및 지식기반창출.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 운영개요

개강일시 | 2010년 3월 15일(월) 10:00시

장 소 | 형성문화원 문화관2층 회의실

운영기간 | 2010년 3월 15일 ~ 11월 23일

-상 반 기 | 3월 15일 ~ 7월 16일(4개월)

-하 반 기 | 8월 23일 ~ 11월 23일(3개월)

수강과목 | 9개 강좌 교실

수강인원 | 각 교실별 20명 내외

대 상 | 형성군 거주자 18세 이상 성별제한 없음.

• 목적

향토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 문화를 현장학습을 통하여 배우고 익혀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행사개요

행 사 명 |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일 시 | 2010년 4월 ~ 5월 중

답사장소 | 관내 문화유적지 1일 코스(국·도지정 유·무형문화재 및 효열유적, 국난극복유적, 기타유적지 등)

대상 및 일정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40여명 내외(버스1대 정원) 총 4회

회 차	날 짜	학 교	참가인원	지원사항
1	2010. 4. 2(금)	청일중학교	53명	전세버스 및 중식
2	2010. 4. 20(화)	강림중학교	42명	전세버스 및 중식
3	2010. 5. 20(목)	갑천고등학교	38명	전세버스 및 중식

구리문화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갈매동 도당굿 행사 안내
구리문화원, 도당굿보존회 공동 주관으로
4월 16일 갈매동에서 본국 개최 예정

근본적으로 농경생활에 기초를 둔 마을 풍습에서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마을굿은 그 자체가 제의요, 축제요, 놀이였다. 마을 민들은 공동체의 축제를 통하여 집단의 화합과 단결을 구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구리시 갈매동에서 격년마다 봄이 오면 하는 도당굿은 서울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굿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온 보기 드문 농촌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갈매도당굿은 199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갈매도당굿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신심과 공동체 협력이 두드러지며, 다른 도당굿이 가을에 행해지는 것과 달리 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5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갈매도당굿은 그 주무(主巫)가 100여년 동안 모계로 전승되어 온 특징을 갖고 있다. 무보에 의하면 4대의 모계 혈통으로 무업이 이어지고 있는 데, 현재 주무인 조순자의 경우에도 세습을 거부하였으나, 신내림에 의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약사역할을 담당하는 산이패를 이끄는 사람은 무속악의 명인이자 경기도무형문화재인 허용업 부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허용업 또한 조순자의 형부다.

갈매도당굿은 음력 2월 1일 삼화주 선출을 시작으로 산치성터 정리와 굿당 설치하고 음력 3월 1일에 날짜를 정하며 이틀에 걸쳐 유가돌기와 본굿이 개최된다.

갈매도당굿은 구리문화원과 도당굿보존회가 공동 주관하며 올해에는 4월 14일 날짜를 정하고 4월 15일 유가돌기, 16일 오전부터 본굿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래문화원

HCN부산방송 “뒸다 우리동네 스타” 녹화방송

3월9일 동래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HCN부산방송 프로그램 “뒸다 우리동네 스타”를 녹화하였다. 동래문화원의 민요장구반, 동래학춤반 공연을 시작으로 수강생들의 노래와 끼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였으며, 대상, 금상, 은상, 인기상등이 수여되었다.

2010. 제9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개최

- ▶ 경연일시 | 2010. 5. 26(수) 오전 11시~
- ▶ 경연부문 | 민요, 판소리, 한국무용(복춤, 풍물 사물놀이 포함)
- ▶ 경연장소 | 강남구민회관(지하철 3호선 대치역 6번출구)
- ▶ 접수기간 | 2010. 5. 17(월) ~ 5. 24(월) 09:00~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강남문화원 3층 사무국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_ 1번출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도보 200미터)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반영합판 사진 2매

▶ 참가비 | 개인부(30,000원), 단체부(50,000원)

▶ 참가자격

〈개인〉

서울 경기 일원에 거주하는 전수자 이수자 전공자를 제외한 일반인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남녀

〈단체〉

상기 개인 참가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단체

전국대회 대상(장관상 이상) 수상자,

학원 운영 등 지도자(강사포함)제외.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개인 대상 수상자는 참가 불가,

단체 대상 수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 구성원 3/1을 교체한 단체로 참가가능.

- ▶ 참가작품 | 민요(경기민요 중 자유곡 1곡, 3분~5분 이내)
판소리(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대목 자유 택일, 3~5분 이내)
한국무용(복춤 풍물 사물놀이 포함), 3~5분 이내

▶ 시상내용 | 대상(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부문별 각 100만원)

금상(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부문별 각 50만원)

은상(강남문화원장상, 부문별 각 20만원)

동상(강남문화원장상, 부문별 각 10만원)

장려상(강남문화원장상, 상품)

특별상 및 인기상(강남문화원장상, 상품)

▶ 심사 | 전통예술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부문별로 위촉, 심사

▶ 특전 | 본 대회 수상자는 강남문화원 주최 문화행사에 출연 기회 제공

▶ 기타

입상자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상 취소, 출전시에 참가증과 신분증 지참
민요와 판소리의 경우, 주최측에서 고수 위촉(단, 참가자 동반 가능)

한국무용 반주용 음악은 카세트 테이프의 경우 A면 가장 앞부분에 CD는 track 1에 녹음하여 접수시 제출할 것.

▶ 주최 주관 | 강남문화원

▶ 문의 | 02)3454~1517~9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제1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개최요강

2010년도 제12회 여성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최 · 주관 | 대전서구문화원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미협대전지회, 한국예총 대전시연합회

▶ 전시기간 | 2010. 7. 13 ~ 7. 26 (총 14일)

양 화(유화, 수채화) | 2010. 7. 13 ~ 7. 19 (7일)

한국화, 서예, 문인화 | 2010. 7. 20 ~ 7. 26 (7일)

▶ 전시장소 | 대전서구문화원 갤러리

▶ 작품부문

한국화(구상, 비구상), 양화(구상, 비구상, 수채화),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 출품자격 | 18세 이상의 여성

▶ 출품자격 제한

가. 내 용

순수한 민족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창작된 예술작품이어야 하며, 다음 작품은 출품 불가능함.

- 1)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2) 미풍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 3) 파손이 우려되는 작품(평면 | 마르지 않은 작품)

나. 규 격

한 국 화(구상, 비구상) 30호(가로90.9cm 세로72.7cm) 이내

양 화(구상, 비구상, 수채화 30호(가로90.9cm 세로72.7cm) 이내

서 예(한글, 한문, 문인화) 2/3절지(가로 47cm 세로135cm) 이내

※ 세워서 제작된 작품.

다. 각 부문은 유리(아크릴 포함)사용을 금지한다.

(단, 수채화의 경우 작품보호등 필요시 유리사용 가능하며 파손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본 규격은 표구 제의 규격이며, 틀의 폭은 15cm 이내로 한다.

(단, 서예는 표구를 제외하며, 입선작 이상의 표구는 일괄 제작하고 비용은 개별 부담으로 함)

라. 출품수 | 1인당 2점 이내

▶ 출품절차

가. 원서배부

1) 기간 | 2010. 3. 15 ~ 6. 8

2) 장소

전국 각 문화원, 한국미협대전지회,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 시내화방 및 필방

※ 홈페이지 www.sgcc.or.kr 에서 출품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 작품접수 | 2010. 6. 7 ~ 6. 8 (2일간)

다. 작품접수처

대전서구문화원(우편, 택배가능하며, 접수당일까지 도착한 작품에 한함)

라. 심 사 | 2010. 6. 10

마. 출품료 | 1점당 30,000원

▶ 작품심사 결과 발표 | 2010. 6. 11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

▶ 전시작품 | 입선이상작품

▶ 시상

1) 전체대상 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 및 부상 500만원 / 매입상금

2) 부문별 최우수상(한국화, 양화, 서예 각 1명)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매입상금

3) 부문별 우수상(한국화, 양화, 수채화, 서예, 문인화 각 1명)

상장 및 부상 50만원

4) 장려상 (3명) | 상장 및 부상 (20만원)

5) 특 선 | 상장 (부문별 약간명)

6) 입 선 | 상장 (부문별 약간명)

▶ 시상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0. 7. 13(화) 오후 3시

2) 장소 | 대전서구문화원 공연장

▶ 작품반출

1) 낙선작품 | 2010. 6. 14 오전 10시 ~ 오후 5시(대전서구문화원)

2) 전시작품 | 2010. 7. 26 오후 3시 ~ 오후 5시(대전서구문화원 갤러리)

※ 기간내 찾아가지 않을시 분실, 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초대작가 지정

본 여성미전에서 특선 2회 이상 입상자로 작품부문별(한국화, 유화, 수채화, 서예, 문인화)로 총점 12점(대상 5점, 최우수 4점, 우수상 3점, 장려상, 특선 각 2점, 입선 1점)이상 획득자는 다음연도부터 초대작가 지정자격을 받을 수 있음.

▶ 관 랐 료 | 무료

▶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7번지 대전서구문화원

TEL. 042-488-5474, 9596 FAX. 042-488-8579

※ 위 사항 중 전시일자와 시상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전서구문화원 지하철이용 찾아오시는 길 : 탄방역 하차 5번 출구

2010년 3월 00일

제1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전람회장 대전서구문화원장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기획워크숍



지난 4월12~13일 양일간 2010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중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이하 생활문화전승)> 사업에 예비 선정된 11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워크숍이 있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문화전승은 어르신들이 연극, 무용 등 문화 예술을 배우던 기존방식에서 탈피, 어르신이 간직한 근현대적 삶의 원형(생활문화, 생애문화 등)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인생의 황금기”를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획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프로그램의 유형발굴과 현실적 운영노하우 전수, 다양한 사례접목을 통해 지역 어르신이 중심이 되어 핵심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해당문화원, 우리회, 문화부, 컨설턴트, 지역 내 전문인력 등 조직과 인력이 결합하는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11개 문화원의 계획서(2차례 보완)를 검토한 결과 각 지역이 지닌 지리적 특성이나 삶의 특성, 생업의 조건, 주거 인구의 연령 등을 고려한 매우 깊이 있는 연구이자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11개 문화원 사무국장과 네 명의 컨설턴트 등은 첫날 각 지역별 사업발표와 토론, 권역별 실행계획서 작성워크숍 및 자유토론회에 이어 다음날 두 번째 사업실행계

획서 작성워크숍과 종합평가 등 이틀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컨설턴트로 참여한 전고필 동신대 겸임교수는 ‘첫째 생활문화를 전통문화와 별개로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둘째 지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최근의 다양한 일자리창출사업과 맞물리면서 단지 문화적 욕구의 해결만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일정 부분 관광수의 유발효과까지 염두에 둔 기획안이 있어 다행이다.

셋째 무리한 하드웨어 사업에 역점을 두는 기획안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의 세부내용의 면밀한 보완과 지역의 문화전문인력의 프로젝트 매니저 형태로 참여해야 사업의 질적 우수성 확보는 물론 과정의 정밀한 관리가 이뤄진다는 진단을 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병호 지역문화과장, 담당사무관, 우리회에서 최중수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해 컨설턴트와 11개 문화원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 동 정 NEWS

지방문화원 회계전산화 프로그램 활용교육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지방문화원 회계 프로그램 전산화 운용과 관련, 지방문화원 회계전산화 프로그램 활용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227개 지방문화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금) 9시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역 회의실(KTX 별실)에서 2회로 진행된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회계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은 계정코드관리, 예산관리, 전표관리, 조회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회계프로그램 활용 우수문화원 관계자 실무사례 강의 등도 있을 예정이다. 지방문화원 회계프로그램 도입으로 직원 업무의 간소화와 지방문화원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로 지역문화 거점기능 활성화, 우리회와 지방문화원 정부전산화 네트워크 강화 등이 기대된다. 교육주관은 한국전산지원 대표 신희재 씨가 맡는다.

국가기록원에서 '제1회 국민생활정책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국가기록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1960~70년대 국민생활정책 관련 민간 기록물"로 새마을운동, 4H운동, 가족계획, 국산품애용운동, 혼?분식 장려, 예너지 절약, 저축운동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정책 관련 기록물을 공모한다.

참가대상은 개인, 단체 등 제한이 없으며 공모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4주간이다. 최우수상 1명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지며 총 66명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신청서 다운로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뉴스」, 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화원 새얼굴



계양문화원장 이건용(李建庸)

1942년생
초대인천북구의회의원 역임
민주평통자문위원역임
제2대인천계양구의회의원 역임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계양문화원 부원장



울진문화원 남문열(南汶烈)

1937년생
울진신문 집필위원
전 공무원
(울진군 기획감사실장 울진읍장)

퇴임 원장



전 울진문화원장 전인식(田仁植)

1935년생
울진군의회 의원
울진문화원 사무국장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물어있는 기록을 찾습니다

60~70년대 우리시대 삶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기록물을 찾습니다.

서랍 속에 묻어 두었던 빛바랜 그 때 그 시절의 자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제1회 국민생활정책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 **기 간** 2010년 4월 19일 ~ 2010년 5월 14일 (4주)

● **수집대상** 60~70년대 주요 생활정책 관련 민간기록물

(새마을운동, 4H운동, 가족계획, 국산품애용운동, 훈·분식장려, 에너지 절약, 저축운동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정책 관련 기록물)

〈공모예시〉

- 표어, 포스터, 상장, 교육자료 등 생활정책과 관련된 개인 소장 기록물
- 일기, 메모, 편지, 사진 등 생활정책과 관련된 각종 개인 생산 기록물
- 기타 생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

● **공모대상** 제한 없음 (단, 기록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어야 함)

● **공모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기록물의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뉴스에서 다운로드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특수기록관리과

· 이메일 : dawn0320@korea.kr

● **입상작 발표** 2010년 5월 28일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시상내용〉

- 최우수상(1명) : 행정안전부장관상 100만원상당의 부상
- 우수상(5명) : 국가기록원장상 50만원상당의 부상
- 장려상(10명) : 국가기록원장상 20만원상당의 부상
- 참가상(50명) : 국가기록원장상 10만원상당의 부상

※ 입상작 발표일과 수상자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기록활용 : 응모작 중 선별된 기록물은 국제기록문화전시회(6월)에 전시 및 국가기록으로 보존·활용됩니다.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

031)750-239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